

I .국가개요

국 명 : 카자흐스탄(Kazakhstan)

국 기 :



청색 바탕은 카자흐스탄의 푸른 하늘과 희망찬 미래를 의미하며, 태양 아래 비상하는 독수리는 카자흐스탄의 무궁한 발전을 상징한다.

□ 국가 개관.

- 위치 : 중앙 아시아 북부
- 면적 : 272만 4900km²
- 인구 : 1486만 8000명(2003)
- 인구밀도 : 5.5명/km²(2003)
- 수도 : 아스타나
- 정체 : 공화제
- 공용어 : 카자흐어
- 통화 : 텡게(Tenge)
- 환율 : 147.84 Tenge = 1달러(2003.11)
- 1인당 GDP : 약 1,649億弗 (2002)

□ 지도 설명 및 자연환경:

○ 카자흐스탄 지도 설명

카자흐스탄은 북으로 러시아와, 남으로 아랄해를 통해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천산산맥을 경계로 키르기스스탄과, 동으로 중국과, 서쪽으로 카스피해를 통해 아제르바이잔과 접경 하고 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은 모두 14 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초원지대에 위치하며, 북단은 모스

크바, 남단은 한반도의 북부와 대략 같은 위도이다. 국토의 대부분은 평원으로 되어 있으나, 서부는 카스피해 연안저지와 투란저지, 중앙부는 카자흐 소사화산지대의 대지, 북부는 서시베리아 저지로 되어 있다. 동부와 남부의 국경에는 만년설과 빙하로 덮인 해발 5000m가 넘는 텐산, 알타이 양 산맥이 솟아 있다.

○ 호수(湖沼)로는 서쪽의 카스피해와 그 동쪽의 아랄해, 그리고 중국과의 국경에 발하슈호(湖)가 있는데 모두 염호이다. 주요하천으로는 이르티슈, 우랄, 시르다리아, 추, 일리 등이 위의 호소로 유입하여, 오비강(江) 유역의 북부 일부를 제외하면 광대한 내륙유역을 형성한다.

○ 기후는 대륙성으로, 덥고 건조한 여름과 비교적 따뜻한 겨울이 교차한다. 북부가 엄동인 시기에 남부의 산록분지에서는 과수원의 꽃이 피는 등 기온의 차

이도 상당하다. 1월 평균기온은 북부에서 -18°C 전후이고, 남부에서는 -6°C ~ -2°C 이며, 7월 평균기온은 북부에서 20°C ~ 22°C 이고, 남부에서는 26°C ~ 30°C 에 이른다.

강수량은 특히 적어서 전국의 연평균 강수량은 250mm 내외이나, 남쪽으로 갈수록 적어지며 사막에서는 100mm 미만이고 산악지역에서는 1,000mm에 달하는 곳도 있다. 우계는 3~4월경이며 이 기간중에 일년 강수량의 대부분이 내린다. 아랄·카스피해의 대평원을 투란 저지라 하는데, 강수량이 적어 대부분 스텝(短草草原) 또는 반사막을 이룬다.

따라서 여름의 고온과 풍부한 일조량을 이용한 농업이 행해지며, 건조에 대한 관개농업이 일찍부터 보급되었다. 시베리아로 연속되는 북부는 토양이 밤색토양과 갈색토양으로 부식되었으나, 다른 대부분의 평야는 부식이 적은 회색토로서 알칼리성 토양이다. 그러므로 식물도 반사막이나 사막성의 저목류이고, 동물은 야생토끼, 마르모트 등의 설치류와 여우, 늑대, 야생당나귀, 영양 등이 서식한다.

Ⅱ. 한국과의 관계

1. 한국과의 관계 내력 및 교류 현황

가. 우리나라와의 관계 내력

1) 개요

- 외교관계 수립 : 1992.1.28
 - 공관설치 : 1993.7.12(키르기즈스탄 결임)
 - ※ 주한대사관 설치 : 95.5월
 - 제 4代 태석원 大使 부임(키르기즈스탄 결임)
- 주요인사 교류실적

(연 혁)

- 1990. 5. Nazarbaev 방한
- 1990. 9. 국회의원 사절단 방문
- 1990. 10. 공로명 주소영사처장 방문
- 1991. 7. 국회의원 사절단 방문

- 1991. 10. E.M.Asanbyaev 최고의회의장 방한
- 1991. 12. 카자흐스탄 국가 승인
- 1992. 1.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 1993. 6. 주카자흐스탄 대사관 창설요원 부임
- 1993. 7. 주카자흐스탄 대사관 공식업무 개시
- 1993. 11. 김창근 초대대사 부임, 신임장 제정
- 1994. 7. Kokaev 외무차관 방한
- 1995. 4. 카자흐스탄 주한상주대표부 설치(서울)
- 1995. 5. Nazarbaev 대통령 방한
- 1996. 3. 투자보장협정 체결
- 1998. 11. 항공협정 가서명
- 1999. 11.3 최승호 대사 신임장 제정(3대; ")
- 2000. 6.13-15 김용준 헌법재판소 소장 일행 방카
- 2000.8.22-24 제1차 한·카 무역경제공동위 개최
(정의용 통상조정관 카자흐방문)
- 2000.9.27-9.30 최종영 대법원장 공식 방문
- 2000.10.17-10.19 제1차 한·카 세관협력회의 개최
(김호식 관세청장 카자흐방문)
- 2001. 8 압디카리모프 상원의장 방한
- 2002. 4 투약바이 하원의장 방한
- 2002. 11 토카예프 외무장관 방한
- 2002. 11 신국환 산자부 장관 카자흐 방카
- 2003. 11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방한 예정

○ 대 한반도 관계

- 카자흐스탄 정부는 우리 정부의 과거 포용정책이 남북한 화해협력 및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는 인식 하에 우리의 대북 평화변영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 북한 핵문제와 관련, 주재국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우리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으며, 또한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와 관계된 사안들이 6자회담 등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 카자흐측은 지난 1994-95년 유엔 안보리 P-5 국가들의 카자흐에 대한 안전보장 서명 사례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정에 있어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 Nazarbayev 대통령은 95.5 한국을 방문한 후 한국과의 실질협력관계 발전을 지원하는 등 한국과의 관계발전은 높히 평가해 왔다. 특히 Tokayev 외무장관은 2002.10 국경일 행사시 카자흐스탄이 한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간주하고 있어 호혜적인 협력증진 및 관계발전은 희망하고 있다.

- 2002년도 주재국 Tokayev 국무장관겸 외무장관의 한국방문, 양국 산자부장관 상호방문에 이어 금년 11월 Nazarbayev 대통령의 한국방문 실현으로 양국은 호혜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실질

협력 관계도 크게 증진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협의체

- 한·카자흐 무역공동위원회
- 한·카자흐 세관협력회의

○ 주요 협정체결 현황

- 무역협정(92.7월), 과학기술협력협정(92.7월), 투자보장협정(96.12월)
- 이중과세방지 협정(99.4 발효), EDCF 차관공여 협정(98.12월)
- 에너지 광물자원 협정(2002.11), 항공 협정 체결 준비중

○ 자매결연 현황

알마타 - 대구시

카라간다시 - 송파구

알마라시키구 - 부산 광역시 중구

우슈토베 - 음성군

알마타시 메테우구 - 서울 특별시 중구

2) 실질협력

○ 97년 금융위기 이후 급감되었던 교역규모가 최근 양국 경제의 호전으로 증가 추세이다.

○ 카자흐와의 교역증진 및 우리기업 시장개척 활동 지원을 위해 카자흐스탄

대사관내 KOTRA 사무소 개설('01.11월), 단독 사무소 개설 (2002,11)

○ 삼성물산이 투자한 "제즈카스간" 구리광산(2.5억불 투자)은 카자흐스탄 최대 고용업체(6만명)중 하나로 매우 성공적 투자사례로 평가

※ 2001년말 현재 15.51억불 투자(카자흐 통계청 자료, 계약 기준)

※ 주요 진출기업 : 삼성물산(구리광산), 신동아(茶), LG 전자 등

3) 총 50만불 규모의 무상협력사업 제공('00)

○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의료단 파견, NGO 지원사업 등

○ 한.카 병원이 설립되어 진료활동 중이며, KOICA등을 비롯한 여러 NGO단체들이 현지에서 활발히 활동중이다.

4) 동포 및 교민사회 현황

○ 카자흐스탄에는 약 11만명의 고려인이 거주한다.

- 1937년 스탈린의 강제이주정책에 따라 카자흐스탄에 정착한 동포들의 후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알마타, 칼간다, 칩켄트, 잠불,크질오르다,팔디구르간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인을 비롯 타민족과 잘어울리며 비교적 중류이상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 카자흐스탄 거주 고려인 숫자는 우즈베키스탄(23만)에 이어 러시아 포함 CIS 국가들중 제2위

○ 1세 동포는 농촌 중심이나 , 2,3세 동포는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도시 거주를 선호하고 있다.

○ 고려인중 다수가 정·관계·학계·문화계 등 제반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근면, 성실한 민족그룹으로 긍정적 평가 된다.

○ 한국정부는 모국어 교육지원, 문화교류, 시청각자료 기증, 동포 단체 육성 및 지원 등 현재 한인권익옹호를 위한 구심점 확보,모국과의 유대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현재 규모는 약 1000여명으로 1992년 외교 관계 수립후 무역, 투자, 유학, 선교 등 목적으로 입국한 교민 체류자와 가족들이다. 현재 국가별 교민 규모 로써는 세계 9위이며, 한인회를 통하여 매년 체육대회 및 기타 행사를 개최 하는등 활발한 활동 중이며 한인 회장으로서는 KIMEP 대학 총장인 방찬영 회장이 역임중 이다.

□ 고려인 활동 현황

- 카자흐스탄 동포 10여만명중 70%는 농촌, 30%는 도시 거주하고 있다.
 -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따라 도시이주 동포 증가추세이다.
- 1937년 강제이주 후손인 2-3세대 고려인이 동포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말,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형편이다.
- 정·관계 고위직, 학계, 문화, 예술 분야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다른 민족 대비 우위를 점하고 있다.
 - 김 계오르기 전 법무장관(현 대통령실 고문겸 반부패 위원회 위원장), 김유리 전 헌법위원회 위원장, 니 블라디미르 대통령 총무수석비서관, 김 블라디미르 까작 무스 구리광업 공사 사장 등
- 남·북한 문제관련, 북한 연고지 동포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가족관계나 정서면에서는 북한에 다소 가깝다고 할 수 있다.
 - 93년 우리나라 대사관 개설이후 상당부분 친한화 되었

으나, 아직 일부 친북세력 상존하고 있다.

* 북한대사관은 지난 98.2. 철수, 현재 주러시아 북한 대사관에서 관할중 이다.

- 고려일보, 고려극장, 고려TV 및 라디오 등 문화 예술·언론 활동을 통해 CIS 지역 내 우리 민족문화의 유지 보전에 중심역할 수행하고 있다.

- 고려일보

- 창간 : 1923.3.1
- 부수(주) : 3,000
- 직원 : 13(6명 기자)
 - ※ 특파원 3명(우슈토베, 아스타나)
- 참고

1923.3~1937. “선봉”

1938.5.15~199012.31 “레닌기치”

1991.1~현재 “고려일보”

- 고려극장

- 창립 : 1932.9.9
- 직원 : 70명
- 공연(연극) : 월 1~2회

- 고려 TV

- 창립 : 1991.2.4
- 직원 : 7명
- 국가채널 : Kazakhstan 1

※ 주1회 20분 방송

- 라디오 방송
 - 창립 : 1984.5.16
 - 직원 : 3명
 - 방송 : 주1회 20분(우리말), 월1회 20분(러시아말)

나) 재외국민 현황

- 당지 재외국민 사회는 92년 외교관계 수립 후 무역, 투자, 유학, 선교 등의 목적으로 입국한 장기체류자와 그 가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 현재 800여명(재외국민 등록자 기준)이 장기체류.
 - 자영업 : 약 380명
 - 회사원 : 약 100명
 - 전문직 : 약 40명
 - 학생 : 약 70명
 - 선교사 : 약 150명
 - 기타 : 약 60명
- 재외국민단체로 한인회, 상사협의회, 선교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40여개 한인교회와 카톨릭성당 및 원불교 사원이 각각 1개소씩 활동 중이다.

2. 양국간 교역현황

가. 한-카자흐스탄 교역 현황

1) 교역현황

○ 대카자흐스탄 교역은 1996년에 230백만불에 달한 후 1997년의 국내 외환위기와 '98년 러시아 모라토리움으로 1999년까지 급감하였으나, 2000년 이후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한국 및 카자흐스탄의 경제회복에 따라 다시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

○ 2002년 교역규모는 197백만불로 수출 126백만불, 수입 71백만불이며, 54백만불의 무역흑자를 기록

- 금년 1-10월간 수출은 174백만불, 수입은 113백만불로서,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75.7%, 수입은 107.2% 증가

- 대카자흐스탄 수출은 가격경쟁력과 우수브랜드 이미지를 보유한 가전제품, 컴퓨터 주변기기, 산업용 전자제품 등이 빠른 수출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버스 등 상용차 및 차부품, 합성수지, 가구류 등도 호조를 보이고 있음.

- 특히, 2002년도에는 한국산 무선통신기기(핸드폰)의 현지 수요가 크게 증가한 바, 동 품목의 지속적인 수출확대가 전망되며,

-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수출도 현지 딜러망 구축 등을 통한 본격적인 마케팅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어 현지수요가 계속 증가될 것으로 기대됨.

- 여타 일반 소비재의 수출은 인접국인 저가 중국산의 범람으로 다소 부진한 편이나, 경기회복,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중고가 고품질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수요 증가가 기대됨.

- 수입은 철강, 금, 알루미늄, 합금철 등 원자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1년을 기점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금년 들어 우리 한전에서 우라늄정광수입이 증가 추세

○ 양국간 교역규모는 두 나라의 경제력에 비추어 볼때 앞으로 확대 잠재력이 많으며, 양국업체의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접목하면 교역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견됨.

- 특히, 카자흐스탄의 유전개발 및 원유 수출에 따른 외화수입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대카자흐스탄수출 잠재력은 큰 것으로 전망됨.

□ 수출입 추이

한-카자흐스탄간 수출입 추이

(단위: 천불,%)

구분	97	98	99	2000	2001	2002	'03.1-10월
수출	92,123 (-12.6)	104,016 (12.9)	56,606 (-45.6)	82,385 (45.5)	108,003 (31.1)	126,110 (16.8)	174,726 (75.7)
수입	83,491 (-33.0)	30,866 (-63.0)	51,357 (66.4)	49,381 (-3.8)	56,136 (13.7)	71,670 (27.7)	113,182 (107.2)
무역수지	+ 8,632	+ 73,130	+ 5,249	+ 33,004	+ 51,867	+ 54,440	+ 61,544

(자료원 : 관세청)

○ 대카자흐스탄 교역은 '97년의 국내 외환위기와 '98년 러시아 모라토리움으로 '99년에는 절반이하의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부진하였으나 2000년을 기점으로 회복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2002년 126백만불을 기록하는 가운데, 2003년 들어서 지속적인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 특히 2000년들어 카자흐스탄의 본격적인 카스피해 유전 개발 및 원유 수출로 외화수입이 늘어나면서 수입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수출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 수출 현황

○ 대카자흐스탄의 수출은 여타 CIS국가 마찬가지로 가전용 전자 제품과 산업용 전자제품이 수출을 주도하는 가운데 석유 화학제품과 자동차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플라스틱 합성수지, 가구류 등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 인접국인 저가 중국산의 범람으로 여타 일반 소비재의 수출은 부진한 편이나, 경기회복,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중고가 고품질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수요 증가 전망이다.

(카자흐스탄의 수출호조요인)

○ 카자흐스탄 주요 수출품인 석유,비철금속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확대 및 생산 호조로 전반적인 수출이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소규모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면서 일부 소비재 및 식품류에 대한 자국내 생산 증가로 인근 CIS 국가에 대한 수출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는 단계임. 아직도 대부분의 소비재는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한국상품의 수출호조요인)

○ 우리나라의 대카자흐스탄 수출은 TV,에어콘,냉장고, 핸드폰,세탁기,마이크로 오븐, 진공청소기등 일상 가전용 전자제품이 수출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들어 버스등 상용차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수출 증가요인으로는 카자흐스탄 경기 호조(1인당 국민소득 약20% 증가)로 인한 소비수요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다.

○식품류 수출도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과 일반 승용차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가전제품과 유무선 통신기기의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인지도와 가격 경쟁력이 높은데다, 보다 공격적인 광고등 마케팅으로 지속적인 수출 호조세를 보이고 있음.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등 일반가정용 가전제품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 한국산 자동차업체의 현지 딜러망 구축등 현지 마케팅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산 버스 구입에 대한 대규모 거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자동차 수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자동차 부품, 자동차 경보기등 제품의 수출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 카자흐스탄의 신수도인 아스타나와 알마티등 주요 대도시에는 건물 신축 및 개보수 공사가 붐을 이루고 있는데다, 건축관련업체들의 한국산 제품 수입에 대한 관심과 거래과 늘어나면서, 한국산 건축자재류의 신규 수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지 주요 건설회사인 Kuat사는 아스타나 신도시의 외교, 주택, 상가 단지 건설 시공에 참가 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각종 건축자재류 수입, 건축자재 생산공장 건설등에 약1억불 상당의 건축자재류 수입과 공장건설에 자금을 투자할 계획임)

○ 문구류, 화장품, 보안기기,컴퓨터 주변용품에 대한 인콰이어리가 꾸준히 쇄도하고 있으며, 주사기 생산라인, 건축자재 생산을 위한 소규모 제조업 운영을 위한 기계,플랜트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향후 수백만불 단위의 소형 기계,플랜트 수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 2003년들어 버스등 승용차의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기 ,전자 ,자동차 이외 수출 품목이 점차 다양화되면서 전반적인 품목이 수출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상품의수출부진요인)

○ 가전3사의 경우 특별한 부진요인은 없으며, 전년동기 대비 40~50%의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한국산 승용차의 경우 가격 대비 품질에 있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국내 자동차사들의 현지 딜러망 구축, A/S센터구

축 등 카자흐스탄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진출 노력이 다소 소극적이며, 전통적으로 부유층의 유럽산 자동차 선호, 중간 소득 계층의 중고차 선호등으로 한국산 자동차 판매가 부진하다.

○ 식품류, 직물류, 기계류등의 경우 카자흐스탄은 기존 유럽산 및 터어키, 아랍 에미레이트등국가와 기존의 거래선이 공고한 편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시장진출 노력이 미흡하여 한국산 제품의 경우 본격적인 진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대카자흐스탄 수출부진품목으로는 생산용 원부자재인 폴리에스테르와 폴리에틸렌 제품으로 가격 경쟁력 요인으로 수출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한-카자흐스탄간 수출입 추이

(단위: 천불, %)

구분	99	2000	2001	2002	'03.1-10월
수출	56,606 (-45.6)	82,385 (45.5)	108,003 (31.1)	126,110 (16.8)	174,726 (75.7)
수입	51,357 (66.4)	49,381 (-3.8)	56,136 (13.7)	71,670 (27.7)	113,182 (107.2)
무역수지	+ 5,249	+ 33,004	+ 51,867	+ 54,440	+ 61,544

(자료원 : 이하 관세청)

※ 유망 수출상품으로는 최근 제조업 회복 추세에 따라 플라스틱 수지등 원부자재, 중소형 플랜트 및 기계류, 통신기기류, 자동차, 식료품등이 있으며, 카자흐스탄내 인프라스트럭처 건설 등 건축분야 일고 있어 건축자재류의 수출이 유망하다.

□ 수출 현황

주요 품목별 수출실적(MTI 2단위)

(단위:천불,%)

순위	품목코드	품목명	2002		2003.1-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126,110	16.8	174,726	75.7
1	81	가정용전자제품	49,707	-1.0	63,740	58.7
2	82	산업용전자제품	34,903	185.0	63,220	154.8
3	74	수송기계	10,228	81.0	14,737	104.5
4	21	기타기계류	939	-69.3	8,544	832.0
5	01	석유화학제품	8,329	-10.1	6,620	-9.9
6	71	기초산업기계	1,256	29.8	2,846	154.3
7	61	산업기계	2,798	-7.5	2,638	-5.3
8	72	농산물	4,499	-1.5	2,376	-31.2
9	31	철강제품	1,248	-32.4	1,347	19.7

(자료원 : 상동)

□ 수입 현황

주요 품목별 수입실적(MTI 2단위)

(단위:천불,%)

순 위	품목 코드	품목명	2002		2003.1-7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71,670	27.7	77,950	112.5
1	61	철강제품	46,942	93.1	48,844	113.9
2	13	광물성연료	3,161	-86.0	14,022	343.6
3	11	금속광물	17,526	198.0	13,822	65.8
4	22	정밀화학제 품	2,628	-5.5	994	-43.3
5	01	농산물	143	1,920.5	90	137.9
6	04	수산물	179	4,502.9	58	-59.0
7	62	비철금속제 품	294	-12.6	57	-61.5
8	02	축산물	500	362.5	23	-80.9
9	12	비금속광물	18	383.5	13	-

(자료원 : 상동)

- 수입 역시 2001년을 기점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철강, 비철금속 제품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 주요 수입품은 페로얼로이, 金, 銀과 평판압연제품등 원자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 들어 우리나라 수입이 증가추세이다.

○ 특히 1999년에는 카자흐스탄 수출은 카자흐스탄의 변동 환율 제채택 (99.4) 에 따른 탕계의 대폭적인 평가 절하로 우리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되고 카자흐스탄의 경기가 침체됨으로써 1억 700만불로 교역량이 급감 하였다.

○ 최근 3년간에는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한국 및 카자흐스탄의 경제회복에 따라 점차 늘어나고 있다.

○ 주요 수출입을 보면

- 수출은 철, 비철금속, 귀금속 등 자원이 주류
- 수입은 현지 생산을 위한 칼라TV 부품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 카자흐스탄의 경기 호전으로 소비재 증가

<한국의 카자흐스탄 품목별 수출입 비중>

(단위:천불 %)

연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992	2,219	-	8,503	-	-6.284
1993	40,742	-	46,810	-	-6.068
1994	29,689	-27.1	61,436	31.2	-31.746
1995	52,802	77.8	73,496	19.6	-20.694
1996	105,363	99.6	124,663	69.6	-19.296
1997	92,123	-12.6	83,491	-33.0	8,632
1998	104,016	12.9	30,866	-63.0	73,150
1999	56,606	-45.6	51,357	66.4	5,249
2000	82,385	45.5	49,381	-3.8	33,003
2001	108,003	31.1	56,136	13.7	51,867
2002	126,110	16.8	71,690	27.7	54,440

(자료원 : KOTIS 통계)

4. 양국간 투자 현황

가.對 카자흐스탄 투자

○ 1991- 2003.3간 總투자 누계 (계약액 기준)는 28건 1.1억불로 대부분 1990년대 중반에 집중되어 있고 1997년 IMF사태 이후에는 투자가 다소 위축된 상태이다.

○ 투자 부문도 미국, 영국, 캐나다 등 産油國은 석유, 광물 등의 석유개발에 집중되어 있는 데 반해 우리는 삼성물산의 구리 광산외에는 건설, 제조, 유통, 유흥업 분야의 소액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카자흐스탄 投資 추이>

(단위 :만불)

구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계
건수	1	4	0	2	5	5	4	1	-	2	3	1	28
금액	51	99	11	451	85	103	10,280	6	-	14	82	34	11,220

(자료원 : 카자흐스탄 통계위원회)

○ 현재 진출기업은 전자, 보일러 등 제조업을 비롯 봉제, 무역,

관광, 유흥업 분야에 소자본 투자사 및 자회사 등이 진출되어 있다.

나. 투자 현황

- 우리나라의 대 카자흐 투자는 삼성물산의 구리채광 제련분야에 2억불 및 LG전자 1,300만불 등 여타 CIS국 대비 활발한 편이다.
 - 삼성이 합작투자한 ‘카작무스’사는 고용규모 6만명의 카자흐 최대 고용사업체로 구리제품 연생산 35만톤에 연수출액 약 6억불 기록중이다.
 - 한편, 우리 광업진흥공사는 대카자흐스탄 자원개발 진출을 위한 제반정보 및 자료수집차원에서 세브첸코스키(니켈, 코발트) 광산에 대한 기초조사를 2003.3-4월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카자흐스탄측과 공동광물탐사 등을 통한 자원교류 협력을 적극 검토중 이다.
- 카자흐스탄은 가채매장량 기준 세계 7위(322억배럴)의 원유자원을 갖고 있으며, 예상매장량은 966-1,190억배럴에 달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세계 원유6대 소비국이자 4대수입국(미국>일본>독일>한국)인 우리는 2002년 이후 대카자흐 원유

자원개발사업 참여를 적극 추진중이며,

- '02.11.7-8 산자부 장관 및 국내 원유개발 콘소시움(석유공사, 삼성, LG, 대성등 5개사로 2002.3월 구성)대표단이 카자흐스탄을 방문, Nazarbayev 대통령과 Shkolnik 에너지 광물자원부 장관등 면담 및 양국간 자원협력약정을 체결하였다.
 - 이와 관련, 국내 콘소시움은 2003.4월 알마티에 사무실을 개설, 카스피해 연안 광구 개발 참여 본격화를 위한 준비작업 진행중이다.
- LG전자는 TV·세탁기·비디오 제품 등 연 50여만대 생산, 연매출 약 1억불(고용규모 250여명)을 달성하였다.
 - 2002.8월 한국 Pan Korea사는 카자흐 파트너 회사와 원유·가스산업의 필수물품인 Stop Valve 생산을 위한 500만불 합작투자계획 합의하였다.(향후 5년간 1억불상당 물량생산 목표, 600명 고용창출 효과)
 - 2002년도에 카자흐측 (KazAtomProm)은 한전측과 우라늄정광 공급 계약을 체결, 2003년중 381톤, 2005-2012년간은 연 800톤의 우라늄을 수출키로 합의하였다.
 - 기타업체 투자현황
 - 신동아 TEA 공장 : 800만불 단독투자(150여명 고용

- 창출 효과, 연 4,500t 생산, 연매출액 2,500만불)
- 대우자동차 : 100만불 합작투자(50%), 자동차 판매 서비스
 - USKO : 300만불 단독투자, 건설·창고업·보일러제조·사무용가구 생산 (고용규모 820명)
 - LG전자가 2002.5월 고려인 자본 카스피은행에 100만불 투자 (주식2.29% 지분)
 - 삼성전자가 현지 판매법인(1인지사)을 설치, 고가품 위주의 가전 제품 판매
 - 기타 건축(신일), 부동산, 봉제, 해운 및 항공운송, 관광, 유흥업 등 다양한 분야에도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다. 대 카자흐스탄 지원현황

- 수출입은행 대카자흐스탄 전대자금 지원 현황
 - '97.9월 TuranAlem 은행에 5백만불 지원 ('00.5월 3백만불, '03.4월 10백만불 증액)
 - '00.5월 Kazkommerts 은행에 20백만불 지원
 - '03.3월 Halyk 은행에 9백만불 지원
 - '03.4월 Caspian 은행에 2백만불 지원
(총 지원액 : 49백만불)
- 통신망 현대화 사업을 위한 EDCF차관, 12.4백만불 지원
(연 3%, 25년 상환/7년 거치)

- 99.8월 정부간 기본협정 및 시행약정 체결
 - 2001.10월 사업자(LG전자-Kazaktelecom 및 Joint Stock International Park)간 구매계약 체결
 - Almaty시 광역권에 74,500회선 규모의 전자교환기 (TDX) 및 관련기자재 공급, 교육·훈련
- KOICA 지원사업(1992-2002) : 총 720만불 상당/연평균 65만불
 - 한·카친선병원 등 프로젝트 3건 125만불, 물자지원 74만불(컴퓨터 등), 연수생 초청 311명, 전문가 파견 25명, 봉사단원 파견 59명 등
 - 2003년도 물자지원 사업 : 아스타나 기형교정. 외상학 연구소 의료 장비 지원 (100천불)
 - 기타 : 카자흐스탄 농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특용작물 재배법 전수를 위한 연수원 건립 지원 (29.2천불,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 현재 산업연수생 협력사업 쿼타 확대
 - 기존 1,351명에서 총 5,280명으로 쿼타 증원결정
 - ※ 연수생의 귀국후 관련기술활용 중소기업 창업 지원방안 검토중이다.

Ⅲ. 현지 출장 가이드

1. 출입국 , 비자

가. 사증 발급 신청

- 카자흐스탄 입국 예상일 약 2주전에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에 신청

- 주 소 : 서울 성북구 성북동 13-10번지

- 전 화 : 744-9714, 9715 - FAX : 744-9760

- 입국사증 신청시 필요서류 : 초청장, 여권(유효기간 6개월이상) 및 여권사본, 사진 등
- 사증발급 수수료는 대사관 구좌에 입금

* 입국사증(단수 관광사증) 발급절차 간소화

- 카자흐스탄 정부 당국은 2001.2.17부로 카자흐스탄 관광산업 개발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래 카자흐스탄 여행사(15개 사)의 초청을 통해 카자흐스탄을 방문하는 경우, 사전에 사증을 발급받아 소지함이 없이 당지 Astana 및 Almaty공항에서 도착사증(Visa

on Arrival)을 받아 입국할 수 있도록 카자흐스탄 사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결정하였다.

- 동 공항 도착사증은 단수 관광사증으로 체류허용 기간은 30일이며 사증 수수료는 미화 30불 상당이다.

나. 겸입국 키르기스공화국 사증 발급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은 카자흐스탄 사증 신청서와 동일한 바 키르기스 방문 여행객은 주한 카자흐스탄대사관에 문의해야 한다.

다. 거주자 등록

- 외국인의 경우 카자흐스탄내 체류기간이 5일을 초과할시 체류지역내 OVIR(외국인거주등록사무소)에 거주신고 의무가 있다.
- 호텔 체류시에는 호텔에서 투숙증명 및 체류신고를 대신 하므로 출국시 까지 동 관련증명서를 보관해야 한다.
- 체류기간 연장시에는 사증기간 만료 최소 2주전에 OVIR에 연장 신청
- * 거주지 변경시 3일 내에 OVIR에 변경등록을 해야함. 변경등록을 기간내에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날짜별로 벌금이 부과된다.

다. 출입국 심사

1) 입 국

- 입국시 세관신고서에 기재한 소지 미화, 원화 등 외화금액의 초과금액을 반출하지 못하는 바, 세관신고서 작성시 소지 현금의 정확한 신고 필요 세관신고서는 출국시까지 반드시 보관, 출국 심사시 제시해야 한다.

2) 출 국

- 출국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을 정확하게 세관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며 세관원과 시비의 여지가 있는 과일, 꿀, 카페트, 그림 등은 가능한 반출치 않음이 바람직하다

라. 예방접종

- 카자흐스탄에는 특별한 풍토병이 없다.

마. 통 관

1) 입국시

- 외화반입에는 금액에 제한을 두지않으나, 반드시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귀금속 등 고가의 물품은 세관신고서에 정확

히 기재 필요 각종 총기류, 탄약류, 마약 및 음란물 등 반입 금지이다.

2) 출국시

○ 무기, 탄약류, 마약,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및 골동품 등 반출금지 희귀동물의 가죽 및 뼈 반출금지 오래된 그림, 옛날 돈 및 골동품 등은 카자흐스탄 문화부장관의 반출승인이 필요하다.

* 비자:비자발급의 경우는 여행사에 맡기면 별 무리없이 받을 수 있다. 여행 목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개 일주일간 알마티에 머무르려면 해당기간동안의 여행 비자를 받으면 된다. 대개 여행사들이 업무를 대행해주는 곳이 많다.

다음은 본인이 직접 대사관에 가서 수속을 할 경우 이다.

▶카자흐스탄 (KAZAKSTAN) 대사관 위치 및 근무시간 ◀

1. 전화 번호 : 02-744-9714~5
2. 근무 시간 : 09:00 - 12:00 (월 - 금)
3. 주소: 한성대 입구?

▶ 관광 비자, 상용 비자 ◀

1. 구비서류 : 여권, 여권 복사본 1부, 사진 1장 (반명함판 정도), 신청서, 초청장
2. 비자유효기간 : 1주일, 2주일, 1개월, 3개월, 1년
(비자 기간에 따라 비자FEE가 틀려짐)
3. 발급소요기간 : 1박 2일, 3박 4일, 7박 8일

(발급소요기간에 따라 비자FEE가 틀려짐)

4. 비자FEE :

가. 비자 기간이 1주일인 경우

-7박 8일 : US\$ 35

-3박 4일 : US\$ 50

-1박 2일 : US\$ 65

나. 비자 기간이 2주일인 경우

-7박 8일 : US\$ 55

-3박 4일 : US\$ 80

-1박 2일 : US\$ 105

다. 비자 기간이 1개월인 경우

-7박 8일 : US\$ 75

-3박 4일 : US\$ 110

-1박 2일 : US\$ 145

라. 비자 기간이 3개월인 경우

-7박 8일 : US\$ 105

-3박 4일 : US\$ 155

-1박 2일 : US\$ 205

마. 비자 기간이 1년인 경우

-7박 8일 : US\$ 205

-3박 4일 : US\$ 305

-1박 2일 : US\$ 405

▶ 특이 사항 ◀

1. 관광, 상용, 관용, 유학등 목적에 상관없이 카자흐스탄 외무부 승인번호가 있는 초청장이 있어야 한다.

2.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에 외무부 승인번호가 도착했는지 확인하고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전화 확인 가능)

3. 비자FEE는 US\$ 로 외환은행 계좌에 송금을 하여야 한다.

4. 비자FEE는 더 송금하더라도 반환이 어려움으로 비자를 접수하면서 정확한 비자FEE를 문의한 후 발급받을 때에 송금 영수증을 가지고 가면 불이익을 줄일수가 있다.

* 거주자등록: 아주 중요하지만 잊기 쉬운게 한가지 있는데 카자흐스탄에 5일이상 체류하고자하는 외국인은 모두가 거주자등록을 해야한다(오빌등록) 만일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경우 벌금을 물게 된다.(공항출국시, 혹은 체류기간중 경찰의 검문시) 일반적으로 도착한 다음날 이 수속을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환전 및 여행경비

○ 방문 목적에 따라 개인의 형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알마티의 물가가 그리 만만한 곳이 못된다. 현재(2003,11월) 1달러에 현지화폐(텡게)는 147텡게의 비율로 환전되고 있다. 택시요금은 그리 먼 거리가 아닌 경우 100-200텡게 정도이다. 호텔이나 레스토랑의 가격도 천차만별이므로 각자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경비는 모두 현금(달러화)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나 여행자수표는 거의 통용되지 않고 있으나 큰 호텔이나 중앙은행에서는 여행자수표(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여행자수표)를 5%의 수수료를 떼고 바꿔준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신용카드도 가지고 가는것도 좋을것으로 생각된다.

요즘은 공공장소(백화점, 공항, 호텔 등)에 현금자동 인출기의 설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도 조금씩 통용되는 편이다. 달러화를 현지화로 환전하는 것에는 별 무리가 없다. 왜냐하면 시내 곳곳에 환전소가 있고 제한 없이 환전해 준다(환전소마다 환율이 다르므로 높게 바꿔주는 곳에서 바꾸면 유리하다.) 미달러화는 1990년 이후에 발행된 것만 유효하고 상태가 좋아야 교환해 준다. 그렇지 않은 화폐는 은행에서 바꾸어야하는 불편한 점이 있다.

3.월별 기후

- 기후 : 대륙성 기후
- 1월 평균 : 북부 -18℃, 남부 -3℃
- 7월 평균 : 북부 19℃, 남부 28~30℃
- 평균 강수량 : 약 250mm(남부 : 약 200mm)

4. 공휴일 시차 및 근무시간

가. 공휴일

- 1월 1-3일
 새해(노비 코드)
 경우에 따라서는 앞, 뒤의 일요일을 일하게 하고 일주일간
 휴일로 쉬기도 한다.

- 3월 8일
 여성의 날

- 3월 22일
 “나우리즈”
 까작민족의 설날입니다. 춘분을 새해의 시작으로 생각합니다.

- 5월 1일
 하나가 되는 날(젠 이진스트바)
 예전 '노동절'로 지키던 명절인데, 독립 후 '국민 대화합의 날'

- 5월 9일
 승전기념일(젠 빠베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을 격퇴한 것을 기념하는 날

○ 6월 10일

아스타나 천도 기념일

아스타나로 수도를 옮긴 것을 기념하는 날(아스타나만 휴일)

○ 8월 26일

제헌절(젠 칸스뚜찌야)

헌법을 만들어 공화국의 기초를 놓은 날

○ 10월 25일

공화국의 날(젠 레스뿌블리끼)

공화국 성립의 날

○ 12월 16일

독립기념일

“ 구소련에서 독립한 것을 기념하는 날”

나. 시차

○ 시 차 : 3월-10월, 알마티 - 서울간 2시간

10월-3월, 알마티 - 서울간 3시간

※ 알마티 - 모스크바간 3시간

다. 근무시간

- 관공서 : 월~금 09:00-18:00
- 은행 : 월~금 09:00-16:00
- 상점 : 보통 09:00-20:00
- 백화점 : 연중무휴 09:00-20:00

5. 호텔 및 식당

가. 호텔

○ 카작스탄의 관문이자 인구 130만의 대도시 알마티에는 많은 호텔이 위치해 있다. 알마티의 특급 호텔은 양카라 호텔과 하이얏트 호텔이다.

○ 양카라 호텔은 젤특산 181 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전화번호는 50-37-10이며, 하얏트 호텔은 샷바예바 29/6 에 위치하고 있고 전화번호는 50-92-34 이다. 두 호텔은 알마티 최고의 호텔이다.

○ 그 외의 호텔들

- 카자흐스탄 호텔 : 다스틱 52번지, 61-99-06.
- 알라타우 호텔 : 다스틱 105 번지, 58-11-11

- **뚜르끼스만 호텔** : 마까따에바 49번지 34-90-15
- **오파르 호텔** : 고콜리야 73번지, 33-00-76
- **알마티 호텔** : 까반바이 바띠르 85번지, 63-09-43
- **알리야 호텔** : 아우에조바 19번지, 53-94-19
- **이식 호텔** : 바젠바이 바띠르 140번지, 60-02-11
- **다올렛 호텔** : 꾸나예바 36번지, 62-04-09
- **다스틱 호텔** : 꾸르만가지 36번지, 63-64-65

나. 식당

o **소호**-카즈백비 65번지,전화62-23-74,미국식 음식이 많으며 저녁8시반 부터 췌즈 라이브가 시작되며 이때 부터는 자릿세가 조금 올라간다

o **트로피카나**-십젠카 까스마나뿌도부,전화34-72-53,각종 해산물 음식도 있으며 알마티에서 가장 유명하고 비싼 식당이다. 야외카페는 조금旡편이며 저녁9시나 9시반 부터 쇼가 시작되는데 다양한 버라이어티쇼를 보면서 식사를 할수 있다

o **스텔슨**-꾸르만노바 칼리니나,전통이 있는 식당이며 주로 유럽 식식단이며 독일음식이 많다

o **아메리칸 그릴**-톨레비 구나예바,말 그대로 미국식당이며 비싸다. 가끔 미국식 음식이 생각 날 때 이용하면 좋다.

- **오리엔트**-쿠나에바43번지,전화73-2004,한국식당 주로 중화요리가 전문이며 짜장면이 맛있다
- **로템**-아블라이하나64번지,전화73-43-08,한인식당.썸에위치, 닭갈비등 한식이 맛있다.
- **신라**-고골라 21번지 에밀레바 한식,중식 모두 맛있고 정갈한 식당이다. 전화 91-10-71
- **아리랑**-아블라이하나 고골라,모밀국수가 유명하며 회비빔밥이 맛있다. 전화62-05-63
- **청기와**-푸르만노바 지백줄리-한인식당,해물뽕밥등 뽕밥류, 장어구이가 유명하다
- **토미리스**-레니나48번지,전화91-68-07,비싼 식당이며 야외카페는 저렴하다.
- **예향**- 한인식당. 전라도 광주 아주머니가 주인이며 홍어회등 독특한 전라도 음식을 맛볼수 있다.
찌미리아지바 마르꼬바에 위치
- **마포가든**-칼리니나 까스제에바에 위치 2003년 7월 오픈 정통 갈비전문점이며 한인이 운영한다.

- **코리아나(한국관)**-고려인 식당.김치등 반찬은 따로 일일이 구매 하여야 되지만 모든 메뉴가 싸고 다양하며 한국관으로 이름을 바꿨다.
- **서울 프라자**-2003년 7월1일 재오픈식당이며, 끼로바 반필로바 거리에 위치,한인이 직접 운영하며 메뉴가 다양하다.

6. 교통 및 통신

가. 개관

- 철도망은 14,000km로 CIS 국가중 세 번째로 방대하며, 이중 1/3은 복선화, 전철화가 완료되었다.
- 카자흐스탄은 2008년까지 수송개발 계획을 수립, 국제운송로 개발 및 국제운송 인프라와의 통합, 국내운송 인프라 구축, 관련법 정비등을 우선사업으로 선정하였다.
- 한편, 한-카자흐 양국간에는 주 2회 정기전세기(인천-알마티)가 운항되고 있으며, 양국간 교역 및 인적교류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동 노선에 대한항공수요도 매년 가중되고 있는 바, 양국간 항공 협력관계 강화 필요성은 큰 것으로 평가된다.

나. 항공

○ 한국으로 운행하는 국제선은 에어 카자흐스탄 항공사가 독점 운행하고 있다. 주 2회 비행기편이 있으며, 서울에서 알마타(남쪽 수도)까지의 비행 소요시간은 평균 6시간 반 정도이고 알마타에서 서울까지는 5시간 반 정도 걸린다.

(편서풍의 영향으로) 그러나 기후에 따라 차이가 있다.

- 알마티에서 수도 아스타나까지의 비행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며 편도 120불 정도의 비용이 든다.

○ 한국-카자흐스탄 노선의 경우 편도는 550불, 1개월 내 왕복 항공권은 650불, 3개월 내 왕복항공권 730불, 3개월 이상은 880불 정도의 가격이다. (2003년)

○ 서울과 알마타의 시차는 -3시간이며, 섬머타임이 적용되는 기간에는 -2시간 차이이다. 섬머타임은 3월 마지막 주부터 10월 마지막 주까지 적용된다.

-한국-카작스탄 : 화요일 저녁 5시 40분(한국 시간), 금요일 저녁 5시 40분 (한국 시간), 에어 카작스탄 항공기, 6시간 반 소요된다.

- 카자흐스탄-한국 : 화요일 아침 6시30분(알마티 시간), 금요일

아침 6시 30분 (알마티 시간), 에어 까작스탄 항공기, 5시간 반 소요된다. *현재 내년 신공항 완공 예정이다.

※ 카자흐스탄 민영항공사인 '아스타나 항공'(British Aerospace사와 합작)는 금년 9월 현재 동 노선을 운항중인 '카자흐스탄 항공'으로부터 운항권을 인수하여 금년 12월부터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며, 보다 안전하고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 택시 및 대중교통

○ 택시요금은 알마티 시내이동의 경우 보통 100-200텡게이며 콜택시나 호텔 주차 영업용 택시 이용 안전 하다.

○ 시내버스 및 전동차(트램바이)는 종류에 따라 다르나 요금은 20-30텡게 수준 이다. (지하철은 없다)

라. 통신

(전화요금)

○ 시내 및 시외통화는 우체국, 키오스크 등에서 판매하는 전화

카드로 공중전화 이용 가능하다.

○ 국제전화는 비싼편이며, 특히 호텔에서의 국제전화는 매우 비싼편이다.

* 한국으로의 국제전화(한국통신, Dacom)카드는 한국식당 등에서 구입가하며 휴대전화는 유럽 GSM 시스템임.

(인터넷)

○ 카자흐스탄의 인터넷 환경은 대부분 모뎀을 사용하고 있으며 카작텔레콤이란 국영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어 다소 사용량에 비해 발전 속도가 더디었지만, 내년 통신시장 개방을 앞두고 있다. 요금역시 아침 점심 저녁마다 차이가 있으며 속도 역시 지역에 따라 다르다. 평균 36bps~56bps 정도이다.

7. 유용한 연락처

* 현지 공공 기관

- 응급 구조 03
- 전화번호 안내 09
- 비행기 운항 안내 54-05-55
- 택시 호출 058

- 경찰 02
- 소방서 01

*** 한인 기관**

- 한국 대사관 53-26-60
- 한국 교육원 46-87-19
- KOICA 53-20-98
- KOTRA 58-44-36
- 한카친선병원 32-56-97
- 한인회 65-74-04

*** 여행사**

- Won travel 50-16-88
- Golden tour 73-63-37
- Golden Asia 92-69-77

*** 한국지사**

- LG TV공장 75-82-82
- 대우 전자 50-36-92
- 삼성 전자 58-59-65

*** 문화 기관**

- 아바이 오페라 발레 극장 62-27-42
- 아우에조브 카자흐 국립극장 92-53-00
- 러시아 국립극장 62-82-73

- 국립 박물관 64-22-00
- 카스뻬예브 미술관 47-83-56
- 민속 악기 박물관 91-63-16
- 카자흐 국립 필하모니 91-81-01
- 서커스 47-92-60

***고려인 단체**

-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46-99-51
- 알마티 민족 문화 중앙 63-14-33
- 고려인 노인회 63-37-40
- 고려인 과학기술협회 91-37-15
- 고려극장 46-86-33
- 카자흐스탄 한국학 센터 48-85-62

***고려인 언론**

- 고려일보사 32-46-98
- 고려말 라디오 방송국 96-04-87
- 우리 민족 TV 방송 20-82-65

8. 여행시 주의 사항

- 기타 구급 약품은 항상 상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카자흐스탄 어느 도시나 물에는 다량의 석회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물은 항상 끓여 마셔야 한다.

○ 생필품의 가격은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하므로 경비를 잘 따져 봐야한다.

○ 재래시장 및 터미널 근처에서는 소매치기를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항상 지갑에 유의해야 한다.

(여권 관리)

○ 여권은 항상 특별하게 관리해야 한다. 본인이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매일 지참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대사관에 연락해서 이에 준하는 증명서를 발급받는 게 필요하다.

○ 최근 경찰 복장을 하고 외국인의 여권을 빼앗는 사건이 발생한적이 있다. 정부는 경찰에 대해 외국인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길거리에서 하지 못하도록 지시해 놓은 상태이다. 만일 공공 장소가 아닌 길거리에서 개인적으로 여권을 요구하면 경찰의 신분증을 먼저 확인하고 원본 여권이 아니라 복사된 내용만을 보여 주는 게 좋다.

○ 만일 강압에 의해 신분증을 요구하면 그 사람의 ID번호나 자동차 번호판등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강압적인 상황에 대해 본국 대사관에 보고할 것이라 말하는 게 좋다.

- 여행자는 여권 분실과 비자 문제에 대비해서 사진 2장을 준비해 다니는 게 좋다.

(공항이용시 유의 사항)

- 주재국 알마티 국제공항 주위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바가지 요금을 받고 있는 택시운전사들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한 바, 택시이용시 주의가 요망된다.

- 까작스판에 입국할 때 공항에서 적어야 하는 세관 신고서에는 주의해야 할 항목이 있다. 가진 돈을 적는 칸이 바로 그것인데, 카자흐스탄에 처음 방문할시는 경우에는.세관 신고서와 관련해서 유의 해야 한다.(최근에는 입출국시 3천불 이하를 소지하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로 바뀜)

- 공항이용시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붙잡고 여기 저기 끌고 다니는 경우가 발생하면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의사 전달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9. 관광 명소

고르키 파크

시인 고르키의 동상이 있으며 산림욕을 즐길수 있다
공원 안쪽에 놀이시설과 보트장이 있고 동물원이 있다

알마타 큰 호수(카작어-오켄 알마트 켈레, 노어-알마췌 스킨에 발쇼이오체로)

이 곳은 산 정상 부근에 있는 호수로 백두산 천지 보다
웅장하고 멋있다. 가까운 곳에 천문대가 있으며 겨울에는
스키도 즐길수 있습니다

꼭주베

한국의 남산과 같은 형태이며 알마타 시내를 한눈에 볼수
있다. 카자흐스탄 호텔 건너편 택시를 이용할수 있고 또는
케이블카를 탈수 있다.

메데오 와 침블락

메데오-종합 스키이트장이 있으며 침블락 중간에 위치한다.
침블락-유럽인이 많이 찾을 만큼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키장
이며 초여름까지 질 좋은 설눈에서 스키를 즐길수 있다.
시내에서 15분거리

국립 박물관(췌뜨랄느이 무제이)

현대식 멋있는 건물이 대통령궁 맞은편에 있으며 이곳에서 단편적으로나마 역사를 알수있고 흥미로움이 많다.

뻘필로브 파르크(28공원)

고골라 푸쉬키나에 있으며 산책하기에경치가 좋으며 1912년에
있은 지진에도 거의 원형을 보존했던 정교회 사원이 있고
세계 민속악기 박물관이 있다.

카스티예브 박물관

삿마에바 무스레보프에 위치하며 카자흐스탄의 미술과
러시아시대의 미술을 관람할수 있다.

뚜르겐 국립공원

경관이 아주 아름다우며 낚시와 송어회를 즐길수 있으며
알마타에서 1시간반 거리, 뚜르겐 폭포가 장관이다.

캅차카이

대규모 인공 호수이며 주변에 휴양소가 있고 낚시도 즐길수
있으며 수영을 즐기며 멀리 하늘에 떠있는 듯한 천산을 바라
볼 수 있다.

만리장성 처럼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으며 크기가 전라
남도만 하다.

이스쿨 (호수)

지리상으로 키르기스스탄에 위치하지만 쉽게 다녀올수 있으며
경치가 너무나 아름답다.

□ 아타켄트 공원

산책로가 있으며 여름카페가 있어 시원한 음료와 식사를 할수
있고 도시 가운데 있는 공원에서 샤실릭(카자흐전통 꼬치요리
닭,돼지,양 고기가있음) 과 맥주 한잔을 즐길수 있다.

IV. 일반 사항

1. 역사

가. 카자흐 민족 및 국가 형성

○ 현재의 카자흐스탄 영토에는 8세기부터 터키인들의 정주가 시작되었다. 13세기에는 몽고인들의 이주 시작, 15세기경부터 두 민족의 혼혈인 카자흐 민족이 형성되었다.

(‘카자흐’는 유랑자, 모험자의 의미)

○ 15세기 중엽, 오늘날의 우즈베키스탄 지역에 칭기스칸의 후예인 아블라이한이 우즈베크를 건설함.이에따라 이 지역 북쪽 시르다리아강 부근에 살던 카자흐 민족은 텐산산맥 북쪽 지역으로 이동하였다.(지금의 카자흐스탄과 중국 신장성의 경계 지역).

○ 이때부터 카자흐인들은 우즈베크 관할에서 떨어져 나온 일부 부족을 흡수하여 다시 서부 카자흐스탄(현 카자흐스탄 중앙 초원지대)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 16세기 전반 카심한 (Qasim Khan) 시대에 30만에서 100만

가랑의 카자흐인들이 대거 서쪽으로 이동하였다. 서쪽으로는 우랄산맥과 카스피해 북서안까지, 동쪽으로는 발하쉬 호수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영역을 차지하게 되었다.

○ 17세기에는 대올다 (발하쉬호수-시르다리아강 부근지역), 중올다 (카자흐스탄 중부), 소올다 (카자흐스탄 서부)의 3국으로 분열하여 세력이 약화되었다.

○ 이에 따라 지금의 중국 신장성 북쪽에서 발흥한 중가르의 지배를 받았다. 18세기 중엽 중국 청조에 의한 중가르 멸망으로 동 지역은 청조의 명목적인 복속국이 되었으며, 일부 카자흐족은 신장 북부로 이주하였다.(시르다리아 유역은 호칸드 한에 의해 점령됨).

○ 중앙아시아 진출을 추진하던 제정 러시아는 1735년에 오렌부르크 요새를 건설, 카자흐스탄 진출의 근거지로 삼는 한편, 1791년 소올다를 점령, 복속시켰다.

○ 18세기 후반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의 축산물 공급지, 곡물과 공업제품의 시장으로서 러시아와 경제적 결속은 강화되었으나, 러시아 군대와 상인에게 토지를 빼앗긴 카자흐인의 불만은 가중되어 1783-97년 동안 소올다 지역에서 반러시아 폭동이 빈발하였다.

○ 19세기 전반 러시아는 중.소올다를 직접 관할하였으며, 1860년대에는 대올다를 귀속시켜 전 카자흐스탄을 지배하게 되었다.

○ 한편 1880-1890년대부터는 러시아인들이 대부분의 목축지를 식민화함으로써, 초원지대에서는 500개 이상의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촌락이 출현하게 되었다. 또한 러시아 화폐 경제가 카자흐스탄 대부분의 지역에 침투해 들어와 동 지역은 러시아의 식민지 시장과, 원료 공급지로서 러시아 경제에 편입되기 시작하였다.

○ 이러한 현상은 시베리아 철도건설 (1891-1904) 이후 더욱 가속되었다. 1917년 2월혁명이후 카자흐 민족주의자들은 아라쉬(Alash)등을 결성하여 사회민주당과 투쟁하였으며, 그해 12월 오렌부르크에서 대회를 열고, 케덱트의 브케이하노프(A.Bukeikhanov)를 수반으로 자치정부(아라시 올다)를 세웠다.

○ 1917년 11월, 오렌부르크에서 뒤토프(A.I. Dutov)의 반소 폭동이 발생하였으나, 1918년 1월 진압되었다. 동년 1,2월 소비에트는 투르가이 주와 미하라친스크를 무력으로 점령하고, 소비에트 정부를 세웠다.

○ 1920년 10월 카자흐스탄은 자치 키르기즈 공화국의 일부로 되었고 수도는 1929년에 오렌부르크의 꺄즐오르다에서 현재의 알마티로 이전하였다. 1935년에는 국명이 "카자흐스탄자치공화국"

으로 개칭되었고 1936년 12월 소비에트사회주의 공화국으로 편입되었다.

- 구소련 붕괴과정에서 공화국들의 연방 이탈이 시작되자 1991.12.10 국명을 "카자흐스탄공화국"으로 변경하고, 12.16 독립을 선언하였다.

나. 현대사 일지

- 1822-73 러시아에 합병, 러시아화
- 1920 소련 키르기즈 공화국의 일부로 편입
- 1925 소련 카자흐 자치구로 지정
- 1936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소련)의 공화국으로 편입
- 1937 소련극동지역 한인의 강제이주 및 정착
- 1941 불가유역 독일인의 강제 이주 및 정착
- 1954 미개척지 개간사업 시작, 개척지의 소비에트화
- 1986 모스크바 정부가 Kunaev 당서기장 (1964-1986)을 러시아인으로 교체 하자 이에 반발하여 Almata에서 저항 운동 발생.
- 1990. 4. 나자르바예프 공산당 제1서기, 카자흐 공화국 최고회의에서 카자흐 공화국 대통령에 선출
- 1991.10.25 카자흐스탄공화국 주권 선언
- 1991.12.1. 대통령 선거에서 나자르바예프 공산당 제1서기 당선.

- 1991.12.16. 독립선언
- 1991.12.21. 독립국가연합(CIS) 가입
- 1992.3. UN가입
- 1993.1. 헌법, 의회 통과
- 1993.12.15. 구 의회(국가최고회의) 해산
- 1994.3. 7. 국회의원 총선
- 1994. 10. Kazhegeldlin 내각 출범
- 1995. 3. 11. 의회 및 내각 해산
- 1995. 4. 29. 임기연장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2000년까지 임기
연장 확정
(총유권자 91.2%참가, 95.46% 찬성으로
국민투표 통과)
- 1995. 8. 30. 신헌법 채택(총유권자 90% 참가, 90%
찬성으로 채택)
대통령 권한 강화, 의원수 축소, 의회를
상하원으로 분리시켜 의회의 권한약화
- 1995. 12. 5. 상원 선거
- 1995. 12. 9. 하원 선거(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지지 정당인
민주당과 국민연합이 다수 당선되어 안정적
의석 확보에 성공)
- 1997. 10. 10. Balgimbaev 내각 출범
- 1997. 12. 10. 아크몰라(Akmola)로 수도 이전
* 1998. 5. 아스타나(Astana)로 개명
- 1998. 10. 8. 헌법개정(대통령 선거일 변경)

- 1999. 1. 10. 대통령 선거(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재선)
- 1999. 4. 5. 변동환율제 채택
- 1999. 9. 17. 상원선거
- 1999. 10. 10. 하원선거
 - * 상하원 모두 오타당을 중심으로 하는 친여세력이 국회 다수의석 차지
- 1999. 10.12. Tokayev 총리 내각 출범
- 2002.1.29. Tasmagambetov 총리 내각 출범
- 2003.6.13 Akhmetov 총리 내각 출범

2. 국민, 언어 ,국토 및 기후

가. 인구 지표

- 총인구 : 14,862 천명(2003.1. 기준)
 - 도시인구 : 8,283천명(55.8%)
 - 농촌인구 : 6,579천명(44.2%)
- 이주동향
 - 독립이후 지난 10년간 카자흐스탄으로부터 국외이주는 약 300만명 - 카자흐스탄으로 유입인구는 약 100만명
 - 국외유출의 70%가 CIS 지역으로의 이주이며, 대부분 러시아로의 이주임.
 - 국내유입 인구의 대부분은 카자흐민족으로서 주로 몽고,

중국, 우즈베키스탄 및 러시아로부터 유입.

○ 기 타 (2003.1. 기준)

- 평균수명 : 남(59세), 여(70세)
- 출 산 율 : 22.8명/1000명
- 유아사망률 : 19.5명/1000명

나. 민 족

○ 주요 민족별 인구분포

- 카자흐인(53.4%), 러시아(30%), 우크라이나(3.7%), 우즈벱(2.5%), 독일(2.4%), 타타르(1.7%), 위그루(1.4%), 고려인(0.64%) 등 130여 민족
- 카자흐인은 독립이전보다 20% 이상 증가하는 반면 러시아인은 대폭 감소하고, 기타 민족도 상당수 감소

다. 종 교

- 중앙아시아 대부분 지역이 역사적으로 회교문화 유산을 간직하고 있어 카자흐스탄 역시 회교적 가치체제와 관행들이 70년간의 공산지배에도 불구하고 온존 (순니파)하고 있다.
- 독립이후 민족의식의 성장과 함께 회교세력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230여개의 회교단체와 1개의 회교대학이 있음.) 농촌지역에서는 회교세력이 강화

되고 있으나, 그 강도는 약하고 세속적이다.

- 러시아인들은 러시아 정교를 신봉하고 있다.

라. 교육기관

- 초중등학교 : 8,290 개
- 전문중등학교 : 285 개
- 전문기술학교 : 306 개
- 대학교 : 164 개

마. 문화, 예술기관 현황

- 오페라, 발레극장 : 2개
- 연극 극장 : 46 개
- 영화관 : 293 개
- 아동극장 : 2 개
- 공연기관 : 24 개
- 문화여가단체 : 1,565 개
- 박물관 : 90 개
- 미술관 : 14 개
- 대중 도서관 : 3,138 개

바. 보건

- 카자흐에는 8,191개의 의료기관(국립:7,240, 개인:951)이 운용되고 있으며 수용 가능 환자수는 97,258명이다.
- 병상수는 1만명당 5.5개이며 의료분야 종사자는 감소되고 있다.
- 국가 재정악화로 인한 병원에 대한 예산지원 감소, 병원시설 노후화로 의료서비스는 전반적으로 열악하다.
- 유아 사망률은 1,000명당 19.4명으로 높은 편이다.

사. 언론 및 출판

- 카자흐에는 3,968개의 신문, 잡지, 방송이 공식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58.2%가 카자흐어 및 러시아어로 발행(방송)되고 있다. 한국어, 위그르, 독일어 등 여타 민족 신문도 있다.
 - 신문 : 1,052개
(주요신문 : 카자흐스카야 프라브다, 파노라마, 켈로바야 네 켈랴, 이즈베스찌야, 카자흐스탄, 에스프레스 카자흐스탄 등)
 - 잡지 : 407개
 - TV, 라디오 방송국 : 124개
 - 통신사 : 15개
- 방송언어에는 카자흐어, 러시아어 외에도 한국어, 독일어, 위그르어, 우크라이나어, 우즈벱어, 영어, 폴란드어, 터키어

등 여타 민족어 방송도 있음.

아. 언어

- 카자흐스탄의 언어 : 카자흐어(정부, 관공서 공식 사용 언어), 러시아어 (상용어)
- 콥착그룹 튀르크어계인 카자흐어를 공식언어로 사용하며, 러시아어는 민족간 소통언어로서 공용어로 사용한다. 러시아어는 인구의 2/3가량이 쓰고 있다.
- 언어 정책은 카자흐스탄의 가장 첨예한 문제이기도 하다. 현재는 슈콜라와 함께 각 대학에서도 필수과목으로 카자흐어를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도시의 인구비도 점차 카자흐인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 결과 길에서도 점차 카자흐어를 자주 듣게 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러시아어만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느낄 정도는 되지 않는다. 물론 지방에 가게 되면 카자흐어만을 사용하는 카자흐 마을도 있다고 한다.
- 언어는 독립 후 민족주의적 분위기에서 민족언어의 복권 정책의 추진으로, 터키어(語)의 방언인 카자흐어를 제1공용어로 정하였다. 그러나 카자흐인 이외에는 카자흐어의 해독률이 낮고, 러시아인의 비율이 중앙아시아 국가 중 제일 높고, 우크라이나인 등을 합치면 절반 이상이 러시아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실제로는 러시아어가 공통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언어문제는 공용어나 교육에서의 문제를 복잡하게 하고 있다.
- 문자는 19세기 후반 아라비아자문어(文語)가 만들어졌으나,

1938년 러시아어의 정자법(正字法)으로 변하였고, 독립 후에는 터키에서 배워 라틴 문자를 사용하기로 정하였다. 그 이유는 러시아어의 사용 비율이 높고,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서 러시아어를 비롯한 슬라브인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40% 정도), 그 외에도 소련 시대에 러시아어의 공통어 정책으로 보급률이 높아졌고, 서구의 근·현대문명을 보급해준 언어였기 때문에 당분간 그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판단에서였다.

- 종교는 과거 소련의 사회주의에 의해 억압되어 왔으나, 독립 후 카자흐인을 중심으로 이슬람교가 기층문화의 하나가 되어 이슬람부흥운동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자. 국토

- 수도 : 아스타나(Astana; 인 구 : 50만명)
- 97.12 이전 수도 : 알마티(Almaty; 인구130만명, 2003.1.)
-카자흐스탄의 경제, 금융, 문화의 중심지
- 주요도시 : 까라간다 (Karaganda), 침켄트 (Chimkent),
끄즐오르다(Kzylorda), 아띠라우(Atyrau), 파블로다르 (Pavlodar)
- 면 적 : 272만 km²(면적 세계9위, 한반도의 12배, 한국의 27배)

- 카자흐스탄은 북으로 러시아와, 남으로 아랄해를 통해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천산산맥을 경계로 끼르기즈스탄과, 동으로 중국과, 서쪽으로 카스피해를 통해 아제르바이잔과 접경하고 있다.

- 그리고 카자흐스탄은 모두 14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초원지대에 위치하며, 북단은 모스크바, 남단은 한반도의 북부와 대략 같은 위도이다.
- 국토의 대부분은 평원으로 되어 있으나, 서부는 카스피해 연안 저지와 투란저지, 중앙부는 카자흐 소사화산지대의 대지, 북부

- 는 서시베리아 저지로 되어 있다.
- 동부와 남부의 국경에는 만년설과 빙하로 덮인 해발 5000m가 넘는 텐산, 알타이 양 산맥이 솟아 있다

- 접경국 (카자흐스탄의 국경선 총길이 : 약12,187km) :
 - 러시아 : 6,467km
 - 중 국: 1,460km
 - 우즈베키스탄 : 2,3000km
 - 키르기즈스탄 : 980km
 - 투르크메니스탄 : 380km
 - (기타 : 카스피해 해안선 600km)

(기후)

- 건조, 대륙성기후
 - 1월 평균기온 : 북부 -18?, 남부 -3?
 - 7월 평균기온 : 북부 19?, 남부 28~30?
 - 평균 강우량 : 250mm(남부 약 200mm)

-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가 크며, 일교차도 크다. 지역에 따라 여름은 40℃, 겨울은 -15℃에서 -40℃ 정도이다. 국토의

대부분이 낮고 평탄한데 서쪽은 산지로 형성되어 있다.

- 볼가강으로부터 알타이 산맥까지, 서시베리아 평원으로부터 중앙아시아 오아시스와 사막까지 다양한 대륙의 모습을 갖고 있고 광대한 영토의 대부분이 스텝지역이다.

- 알마타의 경우 여름은 40℃까지 기온이 상승하며 겨울은 대략 -15℃~-20℃ 정도이다. 그러나 여름의 경우 별로 습하지 않고, 겨울의 경우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아, 실제적으로는 한국보다 여름은 시원하게 느껴지며 겨울은 그리 춥지 않게 느껴진다.

- 수도인 아스타나의 경우 겨울에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혹한이 계속되며 겨울이 1년 중 약 7개월 가량 차지하고 있다.

- 사철에 걸쳐 햇빛이 상당히 강하며, 특히 여름의 경우에는 선글라스를 끼지 않고 거리를 30분 이상 걷게 되면 눈에 상당한 무리가 오게 된다. 겨울의 경우에도 바닥의 눈에서 반사되는 빛때문에 선글라스를 끼는 경우가 종종 있다.

차. 카작스탄의 교육 및 학제

- 제정러시아 시대의 중앙아시아는 문맹률이 98%였으나, 카자흐스탄은 학교교육의 확충으로 0.2%(1979), 2% (15세 이상, 1989)로 낮아졌고, 초등학교 88개교, 중고등학교 247개교, 대학교 63개교에 이른다.
- 알마티 에는 카자흐 국립대학(10개 주간학부, 6개 야간학부, 6개 통신교육학부), 카자흐 공과대학(11개 학부와 각 기업에 몇 개의 분교), 끼뻬 대학등이 유명하고 아스타나 에는 유라시아 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이 있습니다.
- 카작스탄의 학제는 한국과 다른데 한국의 초,중,고 가 한꺼번에 편성된 것 같은 11년 과정의 "쉬꼴라"가 근간을 이루고 있다. 모든 아이들은 만 7세가 지나면 쉬꼴라에 입학하도록 되어 있다.
- 카작스탄의 경우에는 러시아어만을 사용하는 학교와 카작어만을 사용하는 학교가 구별되어 있고, 하나의 쉬꼴라 내에도 러시아어로 가르치는 반과 카작어로 가르치는 반이 따로 나뉘어져 경우가 많다.
- 카작스탄 독립 직후에는 카작어 쉬꼴라의 수가 극히 적었으나 지금에 와서는 러시아어 쉬꼴라와 거의 대등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 쉬폴라에서 공부하는 데는 학비가 거의 들지 않으나 최근에 세워지고 있는 일부 사립 쉬폴라 들은 좋은 환경과 교재, 교사들을 바탕으로 높은 학비를 받기도 한다.
(이런 학교들의 경우에는 '몇 번 학교' 식의 이름이 붙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미라스' 등의 독특한 이름을 붙여 부르기도 한다.)
- 기본적으로 각 지역별로 쉬폴라 가 정해져 있으나 쉬폴라 간의 이동이 자유로운 편이라 얼마든지 본인이 원하는 학교로 전학할 수 있다. 한 가지 문제는 각 쉬폴라마다 교과 진도가 천차만별이라는 점이다.
- 쉬폴라 9학년을 마친 뒤에는 일정한 자격 시험을 거치도록 해서 일정 수준 이하의 학생들은 유급을 시키기도 한다.
또 쉬폴라 9학년이 마칠 때 학생들은 '쉬폴라'에서 계속 공부할지 아니면 '폴리쥐'로 옮겨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폴리쥐'는 우리 나라의 대학(college)의 개념보다는 고등 교육 기관이다.
- 3년제의 '폴리쥐'는 쉬폴라에서 배우는 과목과 함께 특정한 분야의 지식 또는 기술을 집중적으로 배우도록 되어 있는데 외국어나 특정 기술 분야의 폴리쥐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다.
- 최근에는 4년제 폴리쥐도 생겨나는 추세이고 일정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누구나 폴리쥐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많은 사립 폴리취 들이 생겨나는 추세이다.

- 쉬폴라 11학년과 폴리취의 마지막 학년(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매년 7월 말 경 대학별로 입학 시험을 치루는데 이전보다 입학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의 정원 10% 내외에서 입학 시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 학비 부담없이 공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나머지 90% 정도의 학생들은 연간 600-1000불 정도의 등록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물론 학교에 따라서 이 장학 혜택을 받는 범위가 늘어나기도 한다.

3. 정치, 선거 제도 및 현 정부 구성 현황

가. 정치제도

1) 정 체(政體) : 민주공화국

- 삼권분립
-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 특정상황에서는 의회로부터 입법권을 위임받을 수 있음.
(헌법 제45조 제2항 및 제53조 제3항).

- 특정상황에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대통령령을발할 수 있음. (헌법 제45조 제2항 및 제61조 제2항).

2) 국가조직

가) 대통령(The President)

선출

- 유권자들의직접, 보통, 비밀투표로 선출
 - 임기 종료직전 12월 첫 일요일에 선거실시
 - 1차 투표에서 투표자 50% 이상의 지지를 받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다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2차 투표 (2차 투표에서 단순 최다득표자가 당선)
- 선거일이 속한 달의 다음월 둘째 수요일 취임
- 임기 7년
- 2회 이상 연임 금지

권능 및 권한

- 국가원수
- 외교, 국방, 내정의 최고 통수권자
- 의회(상.하원)의 동의를 받아 총리 및 중앙은행 총재 임명
- 상원의 동의를 받아 검찰총장,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 임명
- 외교사절 임명.접수, 선전포고, 국무비서(State Secretary)

임명

- 특정상황하에서 입법권 행사
 - 상.하원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1년 이하의 기간 내에 입법권을 대통령에게 위임 가능(헌법 제53조 제4항)
- 특정상황하에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대통령령 발령
 - 긴급입법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 1개월 이내에 의회가 입법을 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대통령령 발령 가능 (헌법 제61조 제2항)
 - 추후 의회가 대체입법을할 경우, 기존 대통령령은 소멸
- 의회 해산권

나). 의회(Parliament)

□ 구성

상원(The Senate)

- 의석 : 39
 - 14개 주(Oblast) 및 2개 특별시(아스타나 및 알마티)의 주 및 시의회에서 각 2명씩 선출
 - 7명은 대통령이 임명
- 임기 6년
- 3년 마다 반씩 개선

하원(The Majilis)

- 의석 : 77
 - 67석은 지역구에서 선출
 - * 1차 투표에서 각 지역구별로 유효투표의 50%이상 득표자가 당선 50%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다득점 2인간 결선 투표
 - 10석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로 선출
 - * 7% 이상 득표한 정당에 득표비율로 배분
- 임기 5년

□ 권한

양원 합동회의

- 입법권
 - 개헌 발의
 - 법률 입법
 - 특정상황하에서 대통령에게 시한부(1년이내) 입법권 위임
 - 표결 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의 법률거부권 번복
- 총리 및 중앙은행 총재 임명동의권
- 정부 불신임권
 -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
- 예산 승인

하원에서 심의 의결후 상원에 회부

- 법안
- 예산안

상원

- 대통령의 제청으로 대법원장, 대법원판사 선출권
- 검찰총장,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 임명 동의권
- 최고사법위원회(Highest Judicial Council)에 2명의 위원 파견

하원

-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위원 선출
(대통령의 제청)
- 대통령 선거 공고
- 대통령에 대한 반역죄 상정

다) 헌법위원회(The Constitutional Council)

□ 설립년도 : 1996.2월

□ 구성

- 위원장 및 6인의 위원
 -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
 - 위원은 대통령, 상원의장, 하원의장이 각기 2명씩 임명
- 임기 6년, 3년마다 반씩 개선
- 전직 대통령은 평생위원

□ 권한

- 대통령, 상하원 의장, 재적의원 20% 이상의 의회의원 및 총리가 제기하는 다음 사안 처리
 - 대통령 선거, 의원선거, 국민투표의 공정성 여부 결정
 - 의회에서 채택된 법률 심의 (단, 대통령이 서명하기 전)
 - 조약의 합헌성 여부 심의
 - 헌법해석
-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합헌성 여부 심의

라) 법원 및 사법(Court and Justice)

□ 법원 구성

- 대법원(Supreme Court), 주법원(Provincial Court) 및 지방법원(local court)으로 구성
 - 특별법원의 설치 금지 (헌법제75조 제4항)
- 대법원장 및 대법원 판사
 - 최고사법원위원회(Highest Judicial Council)의 추천에 기초하여 대통령의 제청으로 상원에서 선출
 - 대법원장 : Kairat MAMI
- 주법원장 및 주법원 판사는 최고사법위원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 기타 지방법원장 및 지방법원 판사는 판사자격협의회(Qualification Collegium of Justice)의 추천에 기초하여 법무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 최고사법위원회(Highest Judicial Council)
 - 원장 : 대통령이 임명
 - 위원 : 헌법위원회 위원장, 대법원장, 법무장관, 검찰총장, 상원의원중에서 위원으로 선임된 자, 판사 및 기타 인사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

- 판사자격협의회(Qualification Collegium of Justice)
 - 하원의원중에서 위원으로 선임된 자, 판사, 검사, 법률학자, 기타 법조분야 종사자중에서 선임된 자로 구성

마) 지방 행정

- 지방의회(Maslikhat)
 - 주민들의 보통, 평등, 비밀투표로 선출

- 지방행정청의 장
 - 주지사, 시장은 총리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주요인사

<각료명단> : 2003. 10월 현재

부 처	NAME	POSITION
		Prime Minister

	Danial AKHMETOV Alexander PAVLOV Sauat MYNBAYEV Akhmetjan YESSIMOV	First Vice Prime Minister Vice Prime Minister Vice Prime Minister
국무부	Imangali TASMAGAMBETO V	Minister
외무부	Kassymzhomart TOKAYEV	Minister
법무부	Onalsyn ZHUMABEKOV	Minister
재무부	Yerbolat DOSAYEV	Minister
경제예산 기획부	Kairat KELIMBETOV	Minister
산업, 무역부	Adilbek DZHAKSIBEKOV	Minister
에너지, 광물 자원부	Vladimir SHKOLNIK	Minister
운송, 통신부	Kazhmurat NAGMANOV	Minister
건강 보호부	Zhaksylyk DOSKALIEV	Minister

국방부	Mukhtar ALTYNBAYEV	Minister
노동,사회보장부	Gulzhan KARAGUSSOVA	Minister
농업부	Akhmetjan YESSIMOV	Vice-Premier&Minister
교육,과학부	Zhaksybek KULEKEYEV	Minister
내무부	Zautbek TURISBEKOV	Minister
문화부	Dusen KASEINOV	Minister
홍보부	Sautbek ABDRAKHMANO V	Minister
환경보호부	Ait kul SAMAKOVA	Minister

6. 대외 관계현황

가. 개관

○러시아, 중국 및 회교권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는 지리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 이들 국가들을 연결시켜주는 교두보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중앙아의 중심국으로 부상, 국익을 확보하고 세계형화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미, 영, 독, 일본등 선진국들과의 관계발전을 통해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투자유치 및 카자흐산 원유, 천연가스 및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출시장 확보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 하려 한다.

나. 국제기구, 회의 가입관련

○ 카자흐스탄은 CIS, CIS 집단안보조약기구, SCO(상하이 협력기구), EAEC(유라시아 경제공동체), CACO(중앙아시아 협력기구) 등 기구의 회원국으로서 러시아,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양자 및 다자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안보 경제 등 제반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유엔 등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하여 카자흐스탄의 국제적 위상을 꾸준히 높혀 나가고 있다.

○ 특히 Nazarbayev 대통령은 2002.6 아시아 신뢰구축회의(CICA) 1차 정상회의를 주도하여 주변국들은 물론 중동지역 국가들과의 지역협력을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 Nazarbayev 대통령은 2003.9 아스타나에서 카자흐스탄이 다민족국가인 점에 착안하여 종교간 대화와 화합을 촉구하고 각종교간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세계 종교인 대회를 개최함. 이는 9.11 이후 대립의 양상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이슬람권과 기독교권간의 상호이해 증진을 통해 중동 이슬람-유대교 분쟁해결 등을 희망하는 세계 종교계 인사들의 소망을 표명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아시아 신뢰구축회의(CICA)와 더불어 주재국의 국제적 지위향상에도 기여한다.

다. 대러 관계

○ 카자흐스탄은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CIS 집단안보조약기구의 회원국으로서 러시아와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구소련 체제와 같은 러시아 주도하의 종속관계에서 탈피, 중앙아 지역 중심국가로서 균형있는 외교노선을 견지해 나가면서 상호보완적인 경제협력에 주안을 두고 실질협력 관계를 모색하고 필요에 따라 군사, 안보협력을 유지해 나가는 실리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 2003.6 아스타나에서 Mukhtar Altynbayev 카자흐 국방부 장관과 Sergey Ivanov 러시아국방장관은 양국간 군사기술분야 협력 확대, 카스피해 지역에서의 안보협력을 증진키로 하고 양국간 집단안보조약 틀 안에서 양국군이 서로 무기를 구입하기로 하는 등 군사, 안보분야에서 실질협력관계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라. 대 서방 관계

○ 미국, 영국, 독일, 이태리, 일본 등 선진 시장경제국과는 양자간 협력관계 강화를 통해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는 한편, 이들 국가의 투자유치 및 카자흐산 원유, 가스, 비철금속 등 자원의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를 통한 국가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마. 대 중국 관계

○ 중국과는 SCO(상하이 협력기구)을 토대로 정치 경제분야는 물

론 안보면에서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특히 2003.8 SCO 틀 안에서 카자흐스탄, 중국 및 여타 회원국이 참가하는 "Interaction 2003"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은 SCO 회원국들간의 지역안보 및 신뢰구축은 물론 향후 카자흐-중국간의 군사분야 협력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 2003. 6 카자흐스탄에서 Hu Jintao 중국 국가주석과 Nazarbayev 주재국 대통령이 양국간 선린우호협력조약 비준서를 교환하고 2003-2008년간 협력 프로그램에 서명하여 양국간 전략적 협력체제 발전을 위한 기반을 강화했다.

바. 대 테러 관련

○ 9.11 테러사건 이후 미국등 다국적 연합군의 대아프간 작전을 지지하는 등 반테러 및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도 미국 및 주변국과의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02.7 미국의 대아프간 테러대응 활동과 관련, 긴박한 상황하에 서는 미국측이 카자흐스탄 알마티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카자흐-미국간 MOU 체결

○ 03.9 카자흐- 미국간 군사협력 5개년 계획 합의

○ 동 협력계획에는 양국 국방부간 상호 장기적이고 안정된 관계를 구축하고 카자흐스탄군의 장비 현대화, 카스피해 유역의 군사

infra 및 coastal infra 설치지원, 카자흐 직업군인 양성 및 해군교육기관 설립지원 문제는 물론, 테러집단 퇴치를 위한 협력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사. 대 이슬람 국가 관계

○ 인접 중앙아시아 국가와는 이슬람 근본주의 및 극단주의 확산 방지와 마약밀매 단속에 공조해 나가면서 [중앙아시아 협력기구]를 바탕으로 2005년 까지 단일 경제체제 구축 추진(200.6)을 위한 외교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터키 , 파키스탄, 이란등 회교권 국가들과는 [회교권 경제협력기구] 을 통해 상호 교역 및 아프칸 전후 체제 정착 등에 협조 하고 있다.

○ 대 이라크 관계

* 미,영 연합군의 대 이라크전 관련 카자흐스탄 외무부 성명내용 (03.3.18)

○ 카자흐스탄은 이라크의 무장해제를 위한 국제사회의노력을 지지함.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이라크가 무장해제에대한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의 파괴적인 입장으로 인해 수포로 돌아갔음.

○ 카자흐스탄은 국제사회의 이익(interests)과 의지(will)를 반

영하는 UN의 역할과 권능의 강화를 지지함.

○ 카자흐스탄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국제 반테러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왔으며, 핵무장 해제 및 대량파괴무기 비확산 분야에서 미국과 함께 협력하여 왔음.

○ 카자흐스탄은 미국과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기본원칙에 충실하고, 양국간 상호 유대관계를 가일층 심화하기를 희망함.

V. 경제 산업

1. 경제 발전사 및 경제현황

가. 경제 정세

1) 개요

○ 카자흐스탄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요충지이면서 풍부한 천연자원을 갖고 있을 뿐만아니라 높은 교육 수준의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 특히 카스피해에서 대규모의 유전이 발견(00.6)되어 주요 산유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금, 우라늄, 구리, 망간, 철광석과, 함께 납, 아연, 알루미늄, 티타늄등 각종 광물자원이 다량 매장되어 있다.

○ 광활한 국토에 비해 인구(1484만명)가 적으며 도시 인구도 대부분 30만명 이하여서 내수시장이 협소하며 평균 1000km에 달하는 도시간 원거리로 물류이동이 어려워 경제개발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 독립직후 시장 경제체제 도입 과정에서 산업생산 감소 및 소비자 물가 급등등 경제력이 약화 되었으나 지속적인 경제안정 노력으로 2000년부터 경제 성장률과 무역수지, 인플레이션, 환율등이 안정되고 있는 추세이다.

○ 중앙 아시아 국가중 시장 경제개혁 및 대외개방도가 가장 앞서 있고, 러시아와 관계가 긴밀해 대러 우회진출 기지로 유리할 전망이다.

2. 경제 현황

가. 개황

- 카자흐스탄의 경제는 99년부터 국제 원자재가 상승과 원유 자원개발에 대한 외국인 투자 증대에 힘입어 경기침체를 벗어나 연평균 10%대의 성장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 GDP는 2000년 9.5%, 2001년 13%, 2002년 9.5%에 이어 금년에도 1-7월간 전년동기 대비 10.2% 증가
 - 2003년 1-7월간 산업생산도 전년동기 대비 9.0%증가

- 외국자본의지속적인 유입에 따라 원유생산량은 연 15%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원유, 가스 부문의 발전은 주재국의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 카자흐스탄의 금년도 1-7월간 원유 생산량은 29.3백만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11.2% 증가하였으며, 가스 생산은

77.2억 m³를 생산, 21.7%가 증가한 바, 금년도 원유 생산량은 약 52백만톤(일산 103만 배럴) 예상

- 금년 상반기 원유수출량은 21.6백만톤(약 33.8억불)을 기록하였는 바, 수출액 기준시 전년동기 대비 78% 증가
 - * 2002년도 석유 및 관련제품이 전체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 51%
- 동일시기 정유량은 5.8백만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20.6% 증가

- 무역은 원유산업의 빠른 성장을 바탕으로 2003년 1-7월 간 114억불을 기록, 전년동기 대비 31% 증가하였으며, 특히 수출은 71억불로 41%의 증가율(수입 43억불, 17% 증)을 기록하였다.
- 한편, 카자흐스탄은 CIS 국가중 가장 개방적인 개혁 및 구조조정을 지속하여 경제성장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있어, 민간부문 생산이 GDP의 75%를 상회한다.
- 7월초 새로운 '농지사유화법'이 발효되어, 외국인이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임대하거나,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국인의 경우 10년간(주재국인은 49년) 농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농지사유화로 인한 재원은 국가기금(2003.9 현재 27억불 보유)에 적립, 경제안정화 기금으로 활용 계획.
- 외국인직접투자(FDI)의 경우 대중양아 투자액의 80%가

주재국에 집중되고 있으며, 최근 2년간에는 80억불을 기록하는 등 현재까지 약 220억불을 유치하였다.

- 이는 국민1인당 기준 약 1,300불에 해당되는 바, 국민1인당 FDI가 CIS지역에서 가장 높다.

○ 카자흐스탄의 1인당 국민소득은 원유산업의 발전을 바탕으로 빠른 성장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2002년도 \$1,631불을 기록하며 CIS 국가중 러시아에 이어 2위(독립초기에는 11위)를 기록 하고 있다.

- 카자흐스탄의 2003년도 1인당국민소득은 전년대비 17.8% 성장하여, 1,946불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1999년 1인당국민소득에 비해 2배에 상당한다.

○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tandard & Poor's사는 2003년 상반기 주재국의 국가신용등급을 'BB'에서 'BB+'로, 장기국채 등급을 'BB+'에서 'BBB-'로 상향조정 하였다.

- Moody's사의 주재국 국가신용등급은 'BBB+', Fitch사는 'BB+' 이다.

○ 그간 성공적인 거시경제 운용을 통해 2002년도 재정수지와 무역수지에서 모두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재정수지는 세제, 금융개혁 등의 성공적인 이행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해 양호하다.

- 2003년 1-8월간 재정수지는 GDP 대비 0.4%의 재정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주재국 정부는 금년도 재정적자가 GDP 대비 약 2% 내외가 될 것으로 예측

- 인플레이션은 1-7월간 2.3% 대를 기록하였으며, 연말까지 약 4-6%대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2003년 1-7월간 평균환율: 1\$=151.3 tenge)
- 한편, 카자흐스탄의 외환보유고 및 금보유액은 2003.10 현재 각각 43억불, 6.59억불이다.

2. 산업별 구성 및 주요 산업 현황

가. 산업구성

*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공업 32%, 농업 8.7%, 건설 5.4%등의 순으로 최근 수년간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채취산업과 군수산업 비중은 높은 반면 소비재 생산 부문은 20%에 불과 하다.

나. 분야별 실태

○ 제조업 및 채굴업은 석유, 철강생산 호조에 힘입어 2001년 13.5%, 2002년 9.8% 성장을 이루었다.

- 특히 채굴산업은 석유, 가스개발 및 금, 우라늄 등 광물자원 개발로 총 수출의 67%이상을 점유한다.

○ 중공업 분야는 대기업들이 대부분의 생산을 담당하면서, 주로 건설자재, 화학제품, 농기계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거대 국영기업들이 대부분 생산을 담당하면서 주로 건설자재 및 농기계를 , 카라간다, 악튜빈스크, 발하쉬 소재 석유화학공장에서는 연료, 황산등을 생산하고 있다.

- 주재국 Asia Auto사는 금년초 NIVA(4륜구동 소형짚) 조립생산(연 10,000대)을 시작으로, 체코 Skoda사와의 제휴로 금년말부터는 승용차 조립생산도 시작예정 이다.

○ 건설부문은 신수도 건설 및 기본 인프라 부문에서 활성화되고 있으며, 자원판매 수입을 기반으로 주택, 도로, 산업시설 건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주요 인프라 구축사업)

Altynsarino-Khromtau 철도 건설 (북서부 지역, 총연장 400Km, 공사비 2억불)

Dostyk 국제철도역 건설(중국 국경지역, 공사비 2억불)

Almaty-Astana-Borovoe 고속도로(2억불) 및

Almaty-Bishkek 고속도로 개보수 사업(공사비 2.5억불)

Aktau 항만 공사 (공사비 6천만불)

Atyrau, Aktau, Aktobe 및 Shymkent 공항 활주로 공사
및 Astana, Almaty 공항 개보수 사업(공사비 3.75억불)

○ 경공업 분야 주요생산제품은 생필품, 비료, 편직물 등에
특화되어 있으며, 구소련 당시에는 전체 산업생산의 15%를
차지하였으나, 독립이후 그 비중이 대폭 감소 추세이다.

○ 농업생산은 199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면서 GDP의 8-9%
대를 차지하고 있으나 2002년에는 구소련시절제작된 농기계
의 노후화, 비료부족, 품종개발 부진 등으로 전년대비 2.7%
증가에 불과 하다.

- 소맥 등 곡물류는 중북부지역, 목화는 남부지역, 쌀은
아랄해 동부지역, 과일류는 남부지역에서 생산되는 등 지역
별로 특화되어 있다.

- 곡물 수출국이나 곡물의 품질이 낮아 수출경쟁력은 높지
않으며, 러시아, 이란, 이집트 등이 주요 수출시장이다.

-카자흐스탄은 원래 유목을 생업으로 했으나 목축과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500km에 이르는 이르티슈카라간다 운하가
건설된 후, 오비강 좌안의 지류인 이르티슈강의 물이 카자흐
스탄의 중앙부로 관개되어, 1996년 현재 경지 면적은 32만

6000km²이고 관개농지의 면적은 2만 2000km²이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 다음가는 곡창지대로 되었다.

- 농업지역은 이르티슈, 이심의 양 하천과 시르다리야강 연안의 평야에서 봄밀이 재배되고, 남부의 크질오르다를 중심으로 한 시르다리야강 중상류 지역에서는 목화와 사탕수수가 재배의 중심이 된다. 이 남·북 양 지역의 중간이 반사막으로 방목축산이 이루어진다. 남동부에는 앞담배, 포도, 기타 과실이 재배되고 있다. 알마아타 부근에서는 관개농업으로 생산된 사과와 야채가 풍부하다.

- 또한 수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지하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개발되어, 사막과 반사막 지대에 수십의 관개 오아시스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다.

- 그 결과 목지 1억ha가 관개되어, 면양(러시아 2위), 소(3위), 말, 낙타, 돼지가 사육된다.

<3> 석유 및 천연가스관련 산업 현황

(1) 매장 및 생산현황

○ 주재국의 원유 매장량은 가채매장량 기준시 322억배럴(세계 7위*), 추정매장량 기준시 966억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카스피해에 전체 매장량의 60% 이상을 매장되어 있다. (자료원 : 주재국 에너지자원부 산하 지질위원회, 03.5월 통계)

- 매장량중 대부분은 텡기즈, 카라차가나크, 카샤간, 우젠 유전 등이 차지하고 있으며, 가채매장량의 71%를 점유하고 있다.

○ 주재국은 독립직후부터 원유산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개발을 허용한 바, 외국기업들은 국영석유공사인 '카즈무나이가스'와 합작사를 설립, 유전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 카자흐스탄은 CIS 국가중 러시아에 이은 제2위 생산국으로, 원유 생산량은 90년대초 일산 41.5만배럴에서 2003 현재 일산 103만 배럴에 달하고 있으며, 98년 이후 매년 15% 이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향후 카스피해 해상유전인 카샤간 유전(가채매장량 100억배럴 추정) 등이 본격 개발될 경우 2007년에는 일산 1.2백만배럴, 2010년에는 일산 2.3백만배럴, 2015년에는 일산 3.5백만 배럴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주재국의 금년도 1-7월간 원유 생산량은 29.3백만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11.2% 증가하였으며, 가스 생산은 77.2억 큐빅미터를 생산, 21.7%가 증가함.

- 주재국의 금년도 원유 생산량은 약 52백만톤(일산 103만 배럴)에건된다.

※ 2002년도 생산량은 원유 47.2백만톤 (일일 생산량 : 93.9만 배럴, 전년대비 18.2% 증)

- 금년 상반기 원유수출량은 21.6백만톤(약 33.8억불)을 기록하였는 바, 수출금액 기준시 전년동기 대비 78% 증가하였다.

○ 천연가스의 확인매장량은 2.485조m³(자료원 : 미 석유산업 컨설팅기관 Wood Mackenzie)이며, 2002년에는 131억m³를 생산, 2001년(116억m³)대비 13% 증산(자료원 : 주재국 중앙은행 및 통계청)되었다.

○ 천연가스는 러시아와 인접한 카라차가나크 가스전에 전체매장량의 40%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기타 탱기스, 우리타우 등에 분산되어 있고, 최근 발견된 카샤간에도 상당한 양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카라차가나크 가스전 개발 국제콘소시움(KIO)은 2006년까지 40억불을 투자, 개발을 지속하면서 액화천연가스 공장(3억불) 건설도 병행중이며, '필립스'사는 2004년까지 카스피해 아티라우에 액화 천연가스공장 신설(5억불)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중에 있다.

○ 주재국은 파블로다르, 아티라우, 악타우, 침켄트 등 4곳의 정유시설에서 일일 42.7만배럴을 정유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정유량은 5.8백만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6% 증가하였다.

- 주재국은 일본가스공사(JGC)와 합작, 2001-3년간 3.8억불을 투입하여, 아티라우 정유공장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

며, 완공시 동 정유소의 연간 정유능력은현 50만톤에서 480만
톤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주요 유전개발 현황

(가) Tengiz 유전

○ Tengiz 유전은 가채매장량이 60억-90억배럴로 추정되며,합
작사인 Tengizchevroil(TCO) 사가 개발

- 93.4월 Chevron사는 카자흐스탄정부와 200억달러의 Tengiz
유전개발 계약을 체결하였다.

- Tengiz 유전의 생산량은 93년 일산 2.5만 배럴에서 2001년
일산 29만 배럴까지 증가하였으며, 2003.1 TCO측은 3억불을
추가 투자하여 2006년에는45만 배럴, 2010년에는 70만 배럴로
생산량을 증가시킬 계획이다.

(나) Karachaganak 유전

○ Karachaganak 유전은 British Gas(BG), Agip사가 주도하고
있는 컨소시엄인KIO (Karachaganak Integrated Organization)
가 개발하고 있으며, KIO 컨소시엄은 98년 35-40억불을 6년간
투자한다는 계획에 따라 개발을 개시 하였다.

○ 동 프로젝트의 가채매장량은 석유 및 컨덴세이트 22.5억배

럴, 천연가스 4,571억 m³이며, 2001년에는 일산 10만 배럴을 생산하였으며, 2002년에는 원유 516만톤, 천연가스 48억 m³를 생산하는 등 당분간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 Kashagan 유전

○ Kashagan 유전은 아직 탐사단계지만 예비추결과 유전의 규모가 지난 30년간 발견된 유전중 세계 최대규모인 것으로 평가된다.

- 동 유전의 가채매장량은 100억배럴 이상으로 평가되며 최대 600억배럴 규모로 추정된다..

- 2007년 1단계 개발후 생산량은 일산 10만 배럴로 예상되며 추가개발에 따라 생산량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프로젝트 운영권자는 2001년 Agip사가 컨소시엄의 주도권을 확보한 이후 AgipKCO사로 개명하였으며, Agip(이태리), 엑손모빌(미국), TotalFinaElf(프랑스), Dutch/Shell(영국, 네덜란드), Inpex(일본), 필립스(미국) 등이 참여하고 있다.

(라) 기타

○ 중국은 악토베 유전개발(추정매장량 : 10억배럴)에 참여하고 있으며, 중국석유공사인 CNPC가 8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 중국은 2002.12 카사간 유전개발 콘소시움인 AgipKCO에 참여하고 있던 BG의 지분 16.67%를 12.3억불에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여타 참가사들이 우선매입권을 행사하여 중국의 참여시도가 무산된 바 있다.

○ 러시아는 카라차카나크 유전, 텅키스 유전에 루크오일사가 각각 15%, 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 카나다는 1991년 주재국에 진출한 캐나다계 "PetroKazakhstan"사(2003. 5. 30개명, 구 "Hurricane Hydrocarbons"사)가 Kumkol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동 지역의 추정매장량은 약 4.42억 배럴이다.

(가) 송유관 설치 현황

○ 내륙국인 주재국은 석유 소비시장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지정학적 위치와 송유관 부족으로 그간 석유수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 특히, 송유관은 대부분 구소련 시절에 건설되었는 바, 러시아를 경유하도록 건설되었기 때문에 구소련 이외의 시장접근이 거의 불가능 했다.

○ 2001년까지는 수출량의 대부분이 Atyrau- Samara(러시아) 송유관을 경유하였으며, 일부는 철도 등을 통해서도 수출되었으나, 2001.11부터는 Tengiz 유전(Atyrau)과 러시아의 흑해 항구인 Novorossiysk항을 연결하는 CPC 송유관이 공식 개통되었다.

- 이와 별도로 Kenkyak-Orsk(러시아) 송유관이 있으며, 수송능력은 일산 13만 배럴이다.

○ CPC 송유관은 주재국 원유 수출을 목적으로 건설되었으며, 이로써 주재국은 직수출 루트를 보유하게 되었다.

- 총연장 1600km에 공사비가 25억달러 소요되었으며, 수송능력은 일산 60만 배럴이며, 2015년까지 일산 134만 배럴로 증설될 전망이다.

- TengizChevroil사는 동 송유관을 통해 일산 24만 배럴을 수출할 계획이며, 향후 Karachaganak 유전도 약 일산 12만 배럴을 동 송유관을 통해 수출할 계획이다.

○ Atyrau-Samara 송유관은 총연장이 약 1000km이며, 수송능력은 일산 24만 배럴이었으나, 펌프설비를 추가하여 일산 31만 배럴까지 증가되었다.

- 동 송유관은 주재국 Atyrau 및 Mangistau 지역에서 생산된

원유를 주로 러시아로 수출하는 데 사용된다.

○ 한편, 러시아 송유관을 이용한 주재국 원유 수출은 러시아와의 원유수출 경쟁, 러시아측의 송유관 이용료 인상 요구 등으로 다소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나) 송유관 건설 계획

○ CPC 송유관 개통과 Atyrau-Samara 송유관의 수송능력 확대로 주재국의 수송능력은 일산 100만 배럴를 넘어섰으며, 2007년까지는 수출물량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주재국 정부는 Baku(아제르바이잔)-Tbilisi(그루지야)-Ceyhan(터키) 송유관(BTC) 이용 등 수출루트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 현재 다수의 카스피해 석유수출 송유관이 계획되었으나, 송유관을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 대립, 카스피해의 수역분할 문제, 중앙아시아의 정치적 불안 등으로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카스피해 원유자원을 원유수입원 다변화 차원에서 공급안보의 대안으로 간주하고 있는 미국은 카스피해에 대한 이란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터키의 지중해 항구로 연결되는 Baku-Tbilisi-Ceyhan(BTC) 송유관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재국 악타우항과 바쿠를 연결하는 Trans Caspian Pipeline(TCP)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 BTC 라인(1,700km, 27.5억불)은 2002년 착공되어 2004년 완공 예정

○ 반면, 러시아도 카스피해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국을 경유하는 CPC 송유관 이용을 지지하고 있으며,

- 러시아 가스기업 '가즈프롬'(Gazprom)과 주재국 석유공사 '카즈무나이가즈'가 2002.6 합작설립한 '카즈로스가즈'(KazRosGaz)사는 카자흐에서 생산되는 원유■가스를 러시아의 송유관을 통해 서유럽으로수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천연가스 송유량 : 연 35억㎥)

○ 중국은 1997년 주재국 정부와 주재국 서부와 중국을 연결하는 3,000km의 송유관을 건설하기로 합의하였다.

- 2003.3 주재국 석유공사 '카즈무나이가즈'와 중국 석유공사 CNPC간 합작사인 '무나이타스'사는 Atyrau-Kenkyak간 송유관 450km(1.6억불)을 완공한데 이어,

- 주재국 중부의 Atasu와 중국 서부 Alashankou를 연결하는 1,100km 구간 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중에 있음. 동 구간의 공사비는 8.5억불, 공사기간은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빠르면 2004년 중순 착공될 계획이다.

- 따라서, 향후 Kenkyak과 주재국 중부에 위치한Kumkol간이 연결될 시에는 중국과 주재국간의 직수출 송유관이 완공되게 되

며, 현재Kenkyak-Kumkol 구간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 이란 경유노선은 가장 경제적인 송유관 루트(주재국-투르크메니스탄-이란-페르시아만)로 평가되지만, 미국의 반대로 현단계에서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3. 금융 통화 제도

가. 금융제도 현황

1) 중앙은행

- 중앙은행인 카자흐스탄 국가은행(NBK)은 금융정책을 수행하고 전체은행을 조정, 관리하고 있다.
- 1995년부터 BIS 도입 등 International Standards Transfer Programme을 추진하여 상업은행들의 건전성 및 경쟁력 강화, 고객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고객자금의 안전성 제고 등에 주력하고 있다.
- 중앙은행 제시조건에 부합하기 위한 인수·합병, 허가 취소 등으로 상업은행수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Kazkommertsbank, TuranAlem Bank,Halyk Savings Bank of Kazakhstan(HSBK), Almaty Merchant Bank 등은 1998년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을 받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2001년 중앙은행의 주요 금융정책)

- 건전성 제고를 위한 감독기능 강화, 효율적인 은행 감독을 위한 25개 주요 원칙 이행, 은행 리스크 관리방안 수립
- 은행거래의 효율성 제고를위한 법적·제도적 인프라 개선
- 새로운 금융기법의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 개인저축에 대한 집단보장시스템 개선
- 은행간 여신거래의 상환 보장을 위해 기금제도 운용

2) 상업은행

- 상업은행수는 2001년 말 현재 44개로 1995년 대비 1/3 수준이며, 외국인지분 참여은행수도 중앙은행의 최소 자본금 규정 강화로 1998년말 은행설립 및 영업 환경
- 외국인도 합자, 단독출자로 상업은행 설립이 가능.
- 설립자본금은 상업은행 300만달러, 투자은행 500만달러이며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8% 유지의무가 있다.
- 93년 은행감사기준 도입, 설립자본금 증액, 신규허가기준 강화, 은행간 결제제도 도입 등 금융제도 안정을 위한 조치가 지속되고 있다.

(대출금리)

- 94년 기업대상 용자기간은 6개월, 이자율은 중앙은행 할 인율의 3%였으나 현재는 통상 은행자율로 결정하며 차입자 신용도에 따라 연 50~70% 수준이다.

3) 외환제도

(외환관리정책)

- 91년 통화법 제정시 모든 기업은 국내은행 계좌에 반드시 외화 소득을 전액 예치해야 하며 외화매각은 상품 및 서비스 수입, 외환거래, 외국인 투자자의 배당금 해외송금시에만 허용하였다.
- 이후 매년 의무예치 비율을 50%, 40%, 30%로 축소하다가 95년 8월 완전히 폐지하여 기업이 외화계좌 및 외화사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외화거래 보고의무도 면제하였다.
- 외화자산 처분 및 송금이 자유롭고 금액제한도 철폐되었으나, 대외지급시 자금출처의 확인을 위해 상업은행 인증을 반드시 거쳐야 하나 외환관리법을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중이다.

(환율제도)

- 92년 7월 러시아중앙은행 루블화 환율과 연계된 통합 단일 환율제도를 채택하여 루블화의 달러 환율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나 이후 외환거래소에서 매일 거래되는 거래량 및 시세를 기초로 일주일 단위로 중앙은행이 기준 환율을 공고하고 있다.

(환율동향)

(단위:1USD=텡게)

년도	98	99	2000	2001	2002	2003
환율	78.3	119.52	142.27	146.7	154.4	147

(자료 : EIU Report)

(변동환율제로의 이행)

- 1999년 4월 4일 발겐바예프 총리와 카디르잔 다미토프 중앙은행 총재는 기업의 부도와 실업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올해 GDP는 전년 대비 8~10% 낮아짐에 따라 기타 경제적 여파를 분석하여 카자흐스탄 텡게화의 환율변동 폭을 폐지하고 자유변동환율제를 실시하였다.
- 이때 농공은행, 저축은행, 신용은행 등 국영은행과 민간 은행이 설립되었다.

나. 금융, 통화 정책기조

- 카자흐스탄 정부는 시장경제제도 정착에 주력하면서 균형 재정, 환율안정, 인플레이 억제 등 거시 경제 안정화에 힘쓰고 있다.
- 1991년 초 소비재 15%, 중화학 제품 30%, 농산물20%등에 대해 가격자유화를 단행한데 이어 94년에 석유, 석탄, 빵 및 곡물 등 주요 생필품에 대한 가격 자유화를 실시하

였다.

- 1992.7 외환시장 개설에 이어 중앙은행을 설립하고 외환은행법(93.4)을 제정하고 독자적인 화폐인 텡게화를 도입(93.7)하는등 금융권의 기능운용제도 개선에 주력하였다.
- IMF등의 국제 금융기구 권고에 따라 금융, 재무 구조 개혁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다. 경제 안정화 정책 시행

- 시장 경제 정책 추진에 따른 생산 급감, 고 인플레이, 실업 증가, 통화가치 급락 및 채임 증가 등 부작용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 물가 및 재정 안정을 위해 중앙은행 재할인율과 은행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는 등 IMF 지원하에 긴축 정책을 추진 중이다.
- 1999.10 취임한 <토카예프> 총리는 2003년 까지 3년간 4.3억불 규모의 신규 차관을 도입하기 위해 IMF 권고를 경제 정책에 반영하였다.
- 그러나 경기 부양 차원에서 수 차례 텡게화를 평가 절하

하고 통화 공급량을 확대 하는 등 경제상황에 따라 신속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 ‘타스마감베토프’ 현 총리는 취임(2001.1)직후 외국 투자자들의 이익과 자국경제에 대한 기여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지적, 정부의 경제활동 개입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라. 재정 안정화 정책

- 재정 안정화를 위해 징세활동 강화를 통한 세수 확대 및 지하 경제 (GDP대비 25%추정) 양성화에 노력중이다.
- 그러나 원유, 천연가스 및 광물자원 사업을 제외한 여타 산업 부문의 침체지속으로 재정적자가 지속 되고 있다.
- 2003 년도에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경제개혁 목표아래 사회부문 지출증가, 대테러진 수행을 위한 국방예산 증액 등으로 GDP대비 2%(5.38억불) 수준으로 추정 된다.

*** IMF등은 카자흐스탄의 재정이 주변국가들 중 가장 건전한 것으로 평가 하고 있으나 국제유가 안정여부 관건이다.**

<외채 및 외환 보유고>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외채(억불)	63	61	62	67	69	64
외환보유고 (100만불)	1,697	1,461	1,479	1,594	1,997	2,551

(자료원 : EIU Report)

4. 지적 재산권 보호

가. 지적 재산권 보호

○ 지적재산권 보호 및 등록은 법무부 산하 지적재산권 보호위원회(IPRC)가 담당하고 있으나 강제규정, 형사적 처벌규정이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 상표권은 IPRC에 등록, 권한을 획득할 수 있으며, 10년간 유효하고 이후 10년을 연장할 수 있음.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등록도 IPRC에 등록,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IPRC로부터 인증서를 받은 경우 상품 원산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

- 발명품은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법적 보호를 받으며, 발명특허는 20년간 유효하다.

- 과학(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 포함), 문학, 예술, 연극, 영화, 방송 분야에서는 저작권법에 의거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 보호는 등록과 관계없이 저자에게 부여됨. 저작권은 저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40년간 보호를 받는다.

*** 그러나 지적재산권 보호는 민법에 원칙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강제규정, 형사적처벌규정이 미흡,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나. 재산권 및 지적 재산권 보호 규정

o 외국인 투자법의 재산권은 <민법>과 <토지법>(2001년 제정)에 따라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수도 아스타나 및 알마티 등 일부지역에만 토지등록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o 부동산 담보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법적으로 담보물에 대한 금융권의 소유가 제한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동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o 헌법상 토지 및 여타 천연자원은 국내법의 일정 조건에 따라 카자흐스탄 국민만이 소유하거나 임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o 토지의 영구적 사용은 농업, 축산업 및 특별한 사유가 있는 법인에 한정되고, 토지 사유권은 주거, 정원, 별장, 생산 시

설등에 만 적용된다.

○ 외국인 투자법은 토지법상 카자흐스탄 정부가 공여하는 경우에 한해 토지 소유가 가능하다.

5. 최근 국가 경쟁력 평가

○ 미,영,독,일 등 선진국들과의 관계발전을통해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투자유치 및 카자흐산 원유,천연가스 및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출시장 확보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 주재국은 2005년 WTO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바, WTO 기준에 부합되도록 경제개방 수준을 제고하고 정부개입을 줄여나가는 한편,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비롯한 각분야에서 새로운 입법조치를 하는 등 WTO 가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미국은 2001.12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방미시 주재국 WTO 가입지지를 확인하고, 2002.3. 카자흐스탄을 시장경제 국으로 인정하였다.

○ 현재 상품, 서비스 교역 자유화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키르기즈, 중국의 WTO 가입에 이어 러시아의 WTO 가입

이 가시화되고 있어 주재국의 WTO 가입을 위한 교역자유화 조치도 조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견된다.

○ 최근 소비자 물가율이 하락하고 임금인상, 실업률 감소 등 주요 경제지수도 호전 되고 있다.

○ 그러나 임금은 2002년 월평균 132.5만볼로 전년대비 17%가 상승하여 CIS국가들중 러시아(월 평균 14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 카자흐스탄은 '중양아협력기구'(CACO) 및 '유라시아경제공동체'(EAEC)를 바탕으로 중양아 및 CIS 국가들과 단일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외교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상하이협력기구'(SCO)를 중심으로 중국의 서부 대개발과 연계한 경제협력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 또한, 터키,파키스탄,이란 등 회교권 국가들과는 '비아랍 이슬람 지역경제협력기구'(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 ECO)를 통해 상호 경제협력 및 아프간, 이라크 재건 등에 협력하고 있다.

※ 동기구 사무총장은 카자흐스탄 Nabayev 前주파키스탄대사임.

6. 향후 경제개발계획 및 발전 전망

가. 향후 경제 개발 계획

○ 카자흐스탄 정부는 시장 경제제도 정착에 주력하면서 균형 재정, 환율안정, 인플레이션 안정 등 거시 경제 안정화 및 제조업육성 정책을 중점 추진 중이다.

(내수 경제 개혁 추진)

○ 1991년 초 소비재 15%, 중화학 제품 30% 농산물 20%에 대해 가격자유화를 단행한 데 이어 94년에 석유, 석탄, 빵 및 곡물 등 주요 생필품에 대한 가격 자유화를 실시하였다.

*석유가 제품인상율

: 92.1, 400% / 92.6 500% / 92.10 300%

○ IMF 권고에 따라 경제 재무 구조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경제 안정화 정책 수행)

○ 내수경제 정책 추진에 따른 생산 급감, 고 인플레이, 실증가, 통화가치 급락 및 채임 증가 등 부작용을 해소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 물가 및 재정 안정을 위해 중앙은행 제한인율과 은행 지급 준비율을 인상 하는등 IMF 지원하에 긴축정책을 추진중이다.

○ 그러나 경기부양 차원에서 수차례 탕계화를 평가절하하고 통화 공급량을 확대하는 등 경제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나. 국영기업 민영화 및 제조업육성 노력

○ 국영기업 민영화는 <탈 국유화 및 민영화법>(91.6)과 민영화 1,2,3 단계 프로그램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 1단계 (91~92)에서는 주택, 서비스시설 및 소규모 업체를 매각하고, 2단계에서는 중, 대규모 국영기업을 경매 및 <민영화 펀드>에 지분 매각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 종업원 5000명이상 대기업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민영화를 실시했으나 2단계 목표 180개사 중 5개 기업만 매각 되었을 뿐이다.

○ 3단계 (96 ~98)에서는 소규모 기업의 민영화 완료, 중소기업의 현금매각 가속화, 대기업의 개별적 매각을 목표로 추

진 중이다.

○ 2002년 이후에는 ‘타스마감베토프’ 총리가 주요 전략사업 17개 업체에 대한 국영체제 유지를 선언함으로써 민영화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조업 육성정책)

○ 카자흐스탄 정부는 석유, 천연가스 개발과 함께 광물 자원 분야, 농업 및 수입대체 제조업분야의 중점육성을 위해 국내 제조업 관련 업체에 2003.1까지 부가세 면제, 원료 수입시 관세 면제 등 특별지원 조치를 단행했다(1999년)

○ 또한 기간산업망 재건, 신수도 건설 프로젝트 및 정부 조달 구매와 관련한 국내업체의 입찰을 유도했으나, 채무과다로 재정형편이 열악한 제조업체들은 정부 프로젝트와 조달 구매 입찰에 직접 참가를 기피하고 있다.

○ 이와 관련 카자흐스탄 정부는 투자부족, 기술 및 장비 낙후, 산악협동 부진, 현대적 경영기법 부재로 인해 제조업이 위기 상황에 있으며 방치시에는 5년후 제조업비중이 15% 감소하여 단순 자원국으로 전락할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자원개발 촉진정책 추진과 함께 제조기술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03 ~2015간 제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2003.3)

<2003-2015간 제조업 발전계획>

구분	내 용
단계별 성장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2003 -10년) : 제조업 분야 발전기반 확충 * 2단계 (2010 -15년) : 년 8.4%성장 * 3단계(2015년 이후) : 산업생산 비중의 31% 차지
중점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자원 분야 과학기술 진흥 추진 * IT 등 과학기술업체 설립지원, 대기업과의 협력조성 * 연구,생산이 접목된 테크노 파크 건설, 혜택을 부여 쿠르차토프, 프리오제르크, 스테프노고르스크, 알라 타우 등 선정

발전전망

○ 카자흐스탄의 원유 추정매장량이 966억 배럴에 달하는 대규모 원유자원을 바탕으로 2000년이래 연평균 10% 수준의 고도 경제성장을 계속하여 중앙아 지역의 중심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 원유 이외의 우라늄, 금, 구리, 망간, 철광석 등도 세계 10위내 매장량을 가지고 있으며, 아연, 납, 알루미늄, 티타늄, 크롬, 니켈 등도 국제경쟁력을 갖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 희귀금속인 레늄, 오스뮴, 칼륨은 전세계 생산량의 50-80%를 점하고 있다.

○ 카스피해 연안과 내륙에 부존하는 원유 및 광물자원은 카자흐스탄의 미래를 밝게 해 주고 있으며, 지속적인 시장경제 및 민주주의로의 체제 전환, 성공적인 거시경제 운용등을 통해 카자흐스탄은 안정적인 경제성장 기조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 카자흐스탄은 지리적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러시아, 중국 및 기타 주변국과의 우호협력 관계가 발전되고 있고, 우리와의 경제협력을 적극 희망하고 있어 우리의 對러, 對중 우회진출기지 및 CIS 지역의 경제거점으로 활용하는데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 또한, 유전개발 참여를 통한 원유수입선 다변화 및 희귀광물 공동개발 등은 우리의 에너지자원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경제전망

○ 카자흐스탄은 시장경제 제도 정착에 주력하면서 균형재정, 환율안정, 인플레이 억제 등 거시경제 안정화 및 제조업 육성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는 바, 당분간 안정적인 성장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와 관련, 카자흐스탄은 2030년까지의 장기 종합개발정책을 수립,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금년 4월 연두교서에서 균형된 경제개발, 제조업, 첨단 과학기술 산업 및 농업 육성,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향후 카자흐스탄 정부의 주요 경제개발 과제로 제시하고,

- 2015년까지 GDP를 3.5배 증가(2000년 기준)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 이를 위해, 원유 가스산업, 제조업을 집중 육성하고, 교통 통신 기반시설 및 3개 과학기술 산업단지 개발(알라타우(IT), 스테프노고르스크(BT), 쿠르차토프(NT))을 병행하는 한편

- 2003-5년을 농촌 재건의 해로 지정,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지 사유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

※ 참고자료 : 2003-2015간 산업개발계획 개요

○ 목표 :2015년까지 GDP를 3.5-3.9배 증가(2000년 기준)

- 연 9-9.5% 실질 경제성장률, 8.4% 산업성장률

유지

- 2015년까지 생산성 2배 증가

○ 시행 방안

- 2003-5, 2006-10, 2011-15 등 3단계로 추진
- 경제기반시설 개발에 12억불 투자(정부 예상 투자액 : 2.6억불)
- 카스피해 유전개발 및 정유시설 확충에 노력
동기간내 원유관련 외국인 직접투자는 800억불
상회 전망
- 국가개발은행기금, 사업투자진흥기금, 과학진흥
기금, 중소기업진흥기금 등 설립

○ 그러나, 여사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재국민의 24%가 빈곤층에 속해있는 등 빈부격차 및 지역간 개발격차의 심화, 제조업분야의 취약한 경쟁력, 특정 자원에 대한 의존도 심화 등은 카자흐스탄 정부의 시급한 관심과 노력을 요하는 문제로 남아 있다.

VI. 무역환경

1. 수출입 관리 제도

가. 수입 정책 안내

○ 관세

- 수입관세는 품목별로 다양하며, 평균 수입관세는 약 9%임. 카자흐스탄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인 러시아 및 여타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AEC) 참가국인 벨라루시, 키르기즈, 타지키스탄과는 관세동맹을 체결, 무관세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 통관절차상 안내

- 관세법은 2003.4월에 신규 개정되었으나, 내용이 난해한 편이며, 투명성 및 신속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통관신고는 카자흐스탄 내에 상품이 반입된 후 15일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세관의 통관승인은 1년간 유효함. 통관 신고, 서류, 상품에 대한 검사는 통관서류 제출 이후 3일이내에 실시되어야 한다.

- 외국기업들은 자사의 사용목적으로 일부 품목을 1년간 무관세(일부 경우 5년까지 연장 가능)로 수입할 수 있으며,

외국투자자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금으로 수입하는 장비와 부품에 대해서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세관은 수입물품의 경우 임시 보세창고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동 절차로 인해 수입업자는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며, 상품 인도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원산지 규정

- 상품의 원산지 증명서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요구된다.
- 수입상품이 국제협정에 의해 관세 혜택을 받는 경우
- 상품의 원산지가 무관세 대상 국가인 경우
- 카자흐스탄 정부가 규정한 여타 경우

○ 수입쿼타

- 국내 생산업체 보호 차원에서 일부 품목에 대한 보호관세나 수량제한이 있으며, 수입되는 품목이 국내 생산업체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취해질 수 있다.

○ 반덤핑 및 상계관세

- 반 덤핑 조치는 관련업체 또는 기관의 제소에 따라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고, 자국산업에 피해여부를 판정한 후 피해 판정시 반덤핑관세 부과, 가격 의무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상계 관세는 보조금을 받는 국가나 국가연합으로부터 수입되는 수입품에 대해 단기간의 상계관세 조치, 가격 제한 등의 형태로 적용하고 있다.

- 반덤핑으로 제소하기 위해서는 국내 제조업체에서 수입제품의 덤핑가격 판매에 따라 자사의 판매에 상당한 피해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 2000-2002년간 상품 수량 제한을 통한 보호조치는 barium sulphate, 천장재(roofing material), slate, 광물 drilling 장비, 원심펌프, 소화장비, 교량크레인, 변압기, fluid meters, 전기 미터, 일부 식품류, 벽지 등의 품목에 취해졌다.

○ 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관련

- 현재 카자흐스탄 정부는 일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의무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CIS 지역국가와는 자국 발급 인증서를 상호 인정하는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 동 인증서는 카자흐스탄 국가 표준기관에 부속된 연구소 등에서 취득할 수 있으며, 인증서를 발급하는 연구소가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동일 서비스 및 품목에 한해서 여타 CIS국가의 연구소에서 행해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 환경관련 규제

- 환경보호부에서 환경 관련 규제를 총괄하고 있으며, 환경규제로 인한 무역왜곡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산업폐수 등 오염물질 방출시에는 환경보호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유효기간은 1년이다.

- 허가 신청은 카자흐스탄 각지에 소재한 환경보호부 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오염물질 총 배출량은 지방정부와 환경보호부에 의해 결정된다.

○ 품목별 장벽

- 우리 수출품목 및 유망품목에 대한 제도적인 장벽은 없으나, 카자흐스탄이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중저가 소비재의 경우 저렴한 운송비와 인건비를 무기로 하는 중국산과의 경쟁에 취약한 실정이다.

(참고사항)

※ 우리 기업의 대카자흐스탄 수출의 최대 걸림들은 높은 운송비용과 장기간의 운송기간이며, 통상 20“ 컨테이너의 운송단가 및 기간은 각각 약 \$2,300, 23일 내외가 소요된다.

2. 정부 조달 및 국제 입찰 제도

○ 1997년 정부조달법 시행으로 이론상으로는 외국인 입찰자의 접근 및 참여가 용이하게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미리 입찰자를 선정해 놓은 상태에서 외국인에게는 짧은 입찰참여 시간을 주거나, 입찰정보의 투명성이 결여되는 등 외국인의 정부조달 관련 제약요인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 특히, 입찰참여시 서비스제공 이후 대금지불 절차 등에 유의해야 하며, 대금지불에 대한 추가적인 보장조치 요구 및 대금지불 계획 등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3. 현지 시장 규모 , 특성 및 유통구조

가. CIS 역내 높은 교역 의존도

○ CIS 역내국 수입 55.4%, 수출 29.7%('02)로 CIS 국가와의 교역이 여전히 크며, 러시아, 벨라루시, 키르기스스탄 ,타지스탄과는 관세동맹 체결로 무관세 통관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 제조업 붕괴로 대부분의 소비재를 수입에 의존

○ 구소련 붕괴이후 제조업의 와해로 농산품과 일부 식품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비재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이 점차 가시화 되면서 식품류 ,의류, 가구, 건축자재류의 국내 생산이 추진되고 있다.

다. 중국상품의 일반 소비재 시장 석권

○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 상품이 저가와 값싼 운송비를 무기로 카자흐스탄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 신장성(우르무치)등지의 중국상품이 의류, 잡화류등 일반 저가 소비재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편법 통관 활용)

라. 유통채널의 미구축

○ 대부분의 수입상이 영세하며, 전문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데다, 거점도 시간 수입 대상국이 다르며, 전국 연결 판매 유통망이 미구축 되어 있다.

- 소량, 다품종 주문, 대금 결제는 L/C보다 T/T를 선호 하고 있는 형편이다.

마. 고가의 물류비용

○ 유라시아 대륙 한가운데 위치한 내륙국가로 과도한 운송비 부담으로 시장 진출이 쉽지 않다.(러시아,중국등 인접국가와의 경쟁에서 불리)

- 동서간 거리 3,200km, 남북간 거리 1,600km

* 20" 컨테이너 수출시 2,300불, 23일 운송기간 소요

* 운송로는 TSR(안정성이 장점),TCR(신속성)노선 이용

바. 편법 통관, 개별 수입상 활동 성행

○ 통관제도의 미정비로 인접국인 중국으로부터의 불법 통관, 중국, 터어키, 아랍, 에미레이트등과의 개별 수입상(보따리 무역상)의 활동이 성행하고 있어 시장 가격 질서가 왜곡되고 있다.

4. 무역거래시 주의 사항

○ 소액 다품종 주문 , 킷 딜리버리를 선호하며,L/C보다는 T/T가 많음, 외상거래 요청도 빈번한 편이다.

○ 여타지역(국가)보다 조금 비싸게 오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영어 구사자가 적으며, 대부분 노어로 의사 소통을 하고 있다.

○ 전문 수입상이 적으며, 유통구조 정립 과도기이며, 지정학적 특성으로 물류,운송 비용 과다 소요되므로 통관, 운송비 부담에 대한 수출가격을 계산에 넣어야 한다.

○ 대부분의 품목은 현지 품질 인증(Registration)을 받아야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사전에 현지 바이어와 협의, 인증에 대한

수출가격 조정을 해야 할 것이다.

- 한국상품에 대한 이미지는 매우 좋은 편이다.

- 상담시 제품 카탈로그를 충분히 준비하고, 노어 명함이나 제품 설명서를 지참하는 것이 유리하며 회사 로고가 찍힌 작은 선물을 준비하면 좋다.

- 현지인들은 정부인사나 유력인사와의 친분을 거론하면서 본인의 인맥과 자금력을 과시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나, 대부분은 과장된 경우가 많다.

VII. 투자 진출 환경

1. 투자 진출 여건

가. 투자 환경

- 주재국 경제는 99년부터 국제 원자재가 상승과 원유, 자원개발에 대한 외국인 투자 증대에 힘입어 경기침체를 벗어나

연평균 10%대의 성장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 GDP는 2000년 9.5%, 2001년 13%, 2002년 9.5%에 이어 2003년 에도 1-7월간 전년동기 대비 10.2% 증가했다.

- 2003 1-7월간 산업생산도 전년동기 대비 9.0%증가

○ 외국자본의 지속적인 유입에 따라 원유생산량은 연 15%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원유,가스 부문의 발전은 카자흐스탄의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 또한 시장경제 체제 전환과 산업구조 재편, 인프라 확충, 자원개발 등에 필요한 외국자본 및 기술도입 정책을 적극 추진중이다.

○ 상환 부담이 있는 차관 도입보다는 외국인 산업투자 유치에 비중을 두고 외국인 투자법 정비,파산법, 정부지원법 제정 등 투자 활동 보장을 위한 제도 확립에 주력하고 있다.

<외국인 관련 법안 정비 실태>

구 분	법 명	비 고
1994 ~1995년	외국인 투자법(94.12) 중앙은행법,법인등록법 증권 거래법,민영화 법 파산법, 외국인 시민법	+투자 자산 강제 수용금지,외환자유, 국제 중재 의로 및 투명절차 보장

	라이선스법, 회계법, 세법	
1996 ~2002년	특별경제지대법(96.1) 투자지원법(97) 정부조달법(97) 외국인 투자법 개정 (97.6, 2000.3)	+사회 기간산업,제조업 신수도 건설사업, 주택, 관광, 농업분야 투자관련 상항 망라.
2003년	신 투자법(외국인 투자법 및 투자 지원법을 대체)	

○ 카자흐스탄은 외국자본 및 선진기술이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산업구조 재편, 인프라 확충, 자원개발 등에 긴요하다는 판단하에,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및 기술협력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카자흐스탄의 풍부한 원유등 자원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주요한 동인이 되고있는 바, 주재국 정부는 상환부담이 있는 차관도입보다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비중을 두고 외국인 투자법 정비, 파산법·정부지원법 제정 등 투자활동 보장을 위한 제도 확립에 주력하고 있다.

○ 카자흐스탄 정부는 1994.12 외국인 투자법 제정 이후, 1997.6 및 2000.3 두 차례의 개정을 거쳐 2003.1 신투자법을 제정하였으며, 투자자산 강제수용 금지, 외환자유, 국제중재 의뢰 및

투자제도의 투명절차등을 보장하고 있다.

○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개방 정책에도 불구하고, 자원분야 이외에는 외국인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며, 투자제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 및 불만도 상존한다.

○ 이에 따라 투자제도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기회 확대를 도모하되 과도한 특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신 투자법을 제정(03.1)하는 등 외국인 투자환경 정비에 주력하고 있다.

나. 외국인 투자환경 정비내용

(1) 신투자법 제정(2003.1)

○ 원유·가스 및 광물자원이 유망 투자분야로 부각,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독립 초기에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공하였던 과도한 혜택을 축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 기본적으로 내·외국인 구분을 폐지하여, 내국인에게도 동등한 특혜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우선 투자분야 지정 및 세제우대 부여, 투자분쟁 중재 등 투자자들이 제기해 온 문제점들을 보완했다.

○ 그러나 환경요건 강화, 카자흐스탄 국내법 우선적용 등 아직도

투자안정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2) 세제 개정

○ 카자흐스탄 조세법은 CIS 국가중에서 가장 잘 정비되어 있으며, 국제규범 측면에서도 상당부분 부합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투자사업에 부과되는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기본세를 인하를 지속 추진하는 등 세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있다.

○ 또한, 세관조직 개선을 통한 관세정책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 외국인투자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3) 외국인투자자협의회

○ 카자흐스탄 정부는 1998년 외국인 투자자와 카자흐스탄 정부간 투자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목적으로 '외국인투자자협의회'(의장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을 설치하여, 연 2회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우리측에서는 삼성물산이 참가하고 있다.

○ 동 협의회는 투자제도 및 환경 개선, 주요 투자프로젝트 실행 건의, 투자유치 전략 권고 등의 기능을 하고있으며, 그간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법적, 행정적 투명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 카자흐스탄 신투자법 주요 내용 >

구분	주요내용	비고
내,외국인 구분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 외국인 투자법 폐지 * 투자자를 내외국인 구별없이 카자흐스탄에 투자하는 개인,법인으로 규정 	1조 6항
투자법 지위 약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법의 예외 사항을 없애고 “기타 법규에 우선 적용“ 조항 삭제 * 투자 수행상 카자흐스탄의 타법률에 영향을 받는 사항에 대한 동법의 적용 배제 * 외국인 투자자의 실질적 투자운영과 관련 카자흐스탄 관련법규를 직접 적용 	2조 3항
국유화 및 수용관련 투자 보장 약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유화 및 국가 수용에 대한 보상은 존속 * 구법에서는 대상에서 제외 되었으나, 카자흐스탄 법률에 규정되는 예외적인 경우 인정 	
환경 안정성 보장 조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법에서는 법률변경에 의한 투자자 지위 약화시 투자 당시 법률 최소 10년 적용 규정. 	4조 3항
투자 안정성 보장 조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법은 국익, 환경보호, 보건,사회풍속 관련등 법규 변경시와 물품의 수입, 제조,판매 절차 및 조건 관련 법규 제정시 보장 예외를 명시 *구법상의 신속정확하고 효과적인 보상에 관한 투자자의 권리 보장 조항을 	

	삭제	
우선 투자 분야 지정 및 우대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자흐정부가 세부 우선 투자분야 지정 * 우선 투자분야에만 관세, 조세등 혜택을 부여 * 조세,관세의 우대기간을 5년으로 한정 	
투자 분쟁 중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분쟁의 경우 당사자 합의시 국제 중재기관 제소 가는 조항은 존속 * 투자분쟁에 포함되지 않는 분쟁은 카자흐스탄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 	
외환 관련	* 구법상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외환의 지체없는 국내의 이전보장 조장을 삭제	

○ 외무부 산하 투자위원회는 2000.12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되었다.

○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모색하고, 오국인 투자자의 투자 실행여부에 있어 투자자와 정부부처간 협의를 조정한다.

○ 외무부 산하 투자위원회 연락처

-주소 : Pobedy Avenue 33, 47300 Astsns, Kazakhstan.

-Tel : (7-3272) 118 414

-Fax : (7-3272) 118158

-E-mail :sci@ kaznet.kz

-Website : www.kazinvest.com

□ 금융상의 제한

○ 1996.7 IMF 협정 8조를 수용하여 내국인의 외환 자유화 및 외국인 투자자의 과실 송금을 허용하고 있다.

○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은 1999.4 환율규제 제도를 폐지하고 변동 환율제 도입 등 환율자유화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 외환 반출입은 중앙은행의 외환관리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외환 반출(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사본 등 근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미화 \$1만불 이하의 반출은 외환관리에 필요한 단순서류 제출로 가능하며, 미화 \$1만 초과시에는 관세위원회가 발행하는 “deal passport” (거래 허가서)와 인보이스 사본,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 “deal passport”는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발행되며, 외환 송금은 내·외국인 모두 외환구좌로부터 이루어진다.

○ 대카자흐스탄 교역시 대금결제 수단은 유명 서방은행이 확인한 L/C를 통해 거래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카자흐스탄 기업들은 현지 상업은행에서 L/C를 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유명 서방은행의 추가 보증(reconfirmation)이 요구되며, 상품선적 사전에 수입업체에게 대금지불을 재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세제상의 제한

○ 2002.1.1부로 발효된 신규 조세법은 국제적인 조세 규범을 모델로 하여, 형평성, 단순성을 개선하여 제정되었으나, 세법의 실제 적용·집행관련 세부규정 미비, 불투명성, 일관성 결여 등의 문제

제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특히 세무경찰의 자의적인 단속으로 투자자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 카자흐스탄 정부는 2004.1.1부로 부가가치세를 현16%에서 15%로 낮추고, 개인소득세를 3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 현행 주요 세율은 아래와 같다.

-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 최고 30%
- 부가가치세(VAT) : 최고 16%
- 사회보장세(social tax) : 최고 21%
- 재산세(property tax) : 1% (비영리 기관 : 0.1%)
- 토지세(land tax) : 품질, 위치, 용수공급 가능 여부에 따라 차이
- 물품세(excise) : 품목에 따라 차이
- 운송세 : 운송수단에 따라 차이
- 경매세(auction fee) : 3%

* 우리나라를 포함 35개국과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다. 세법 개정 사항

○ 카자흐스탄의 조세법은 CIS 국가중에서는 가장 잘 정비되어 있고, 간결성 있고 국제 규범 측면에도 부합한다.

○ 투자사업에 부과되는 소득세, 부과세, 사회보장세 등의 기본 세율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세부담 경감을 도모하

고 있다.

- 카자흐스탄 정부가 규정한 우선사업에 투자할 경우,
 - 투자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2년-8년간 최고 100%까지 세금공제
 - 투자에 필요한 장비 및 원료반입시 전액 또는 일부 관세 면제 등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

<기본 세율>

구 분	세율(%)	비 고
소득세	30	
부가가치세	16	'01.6.1부로 20%에서 16%로 조정
평균수입관세	9	
사회 보장세	21	'01.6.1부로 26%에서 21%로 조정

○ 그러나 세법의 실제 적용, 집행 관련 세부규정 미비, 불투명성, 일관성 결여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특히 세무경찰의 자의적인 단속으로 투자자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 외국인 투자법상 관세 면제 부문이 실제 관세부과 규정과 차이가 있어 매년 관세 당국이 일반 관세 규정집 등을 발행하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정확한 파악이 곤란하다.

○ 모든 특정관세의 종가세 전화 추진 (2000.3)에도 불구하고 점진적 혼합관세를 시행하고 있는 등 관세제도 개혁이 지연되고 있다.

○ 이와 관련 카자흐스탄은 세무당국의 권한제한, 명확한 납세자 권리 규정, 세율인하, 세관업무 효율화 및 관세정책투명화 등의 방향으로 조세법 및 관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세법, 관세법 개정 추진 방향(2003년)>

세 법	관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인하 ○ 사용자 부담 사회보장세 인하 ○ 투자프로젝트 기획, 관리 제도 개선 ○ 2004년부터 사회. 경제개발 관련 부 출연 투자프로젝트 명시 * 2006년 까지 사회경제 발전 계획 내용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 조직 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 ○ 관세 정책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 확보 ○ 대외 경제활동 참여자에 대한 간섭 최소화 ○ 수송, 통관에 있어서의 공평성 보장 ○ 세관원, 공무원의 작위, 부작위에 따른 민원 접수 시 처벌 강화

라. 외환규제 완화

○ 1996 IMF 협정 8조를 수용하여 내국인의 환전 자유화 및 외국인 투자자의 과실 송금을 허용하였다.

○ 중앙은행은 1999.4 환율규제 제도를 폐지하고 환율자유화 조치 (변동환율제)를 단행하였다.

○ 이와 함께 외환규제 완화를 위해 2003 -2004년간 비거주가 외환거래 여건 개선, 외국은행 계좌 개설 완화 등 외부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2003 -2004년간 외환 규정 개정 방향>

- 국제 신용 평가기관으로부터 높은 투자등급을 부여받은 비거주자채권 등에 대한 거주자의 투자를 허용
- 국내은행의 비거주자에 대한 차관 제공시 허가제 폐지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외환거래 제한(96.12도입) 철폐
- 자국민의 외국은행 계좌개설 요건 완화

마. 민영화 제도 도입

○ 정부는 “카르트란스오일”, “카르트란스가스”, “KEGOC(전력)” 및 “KTZ(철도)”등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지속 추진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 국영기업 수는 중소기업이 5,000여개 대기업이 1,000여개에 달하며, 2000년에 14개 대기업 민영화 계획이 무산됨**

○ 민영화 제도 개선 방향

- 인프라 건설 부문에 대한 민영화, 투자보장 강화를 모색 중이다.

- 자원 독점법(98년 도입)상 인프라부문 건설에 대한 투입비용 회수가 적시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 “천연자원 수송건설 관련 비용회수 원칙”을 마련 중이다.

*** 상기 원칙은 전력관련 부문도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철도, 통신부문에 적용을 검토 중이다.**

- 민영화 된 시설운영에 대한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민법상의 의무, 계약조항 및 파산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 경쟁정책

○ 상품, 서비스 시장에 대한 주재국 사업자의 독점시도

- 2001년 채택된 ‘경쟁과 독점활동 방지에 관한 법’은 상품과 서비스 시장에서 독점활동을 규제하고 있으며, ‘국가등록청’(State Register of Dominant Participants), ‘자원독점 규제 및 경쟁보호 위원회’ 등이 독점활동 규제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단일품목의 경우 두개의 사업자가 5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금지하고 있으며,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 주요 감시 품목으로는 석탄, 가스, 항공·디젤유, 석유, 정유, 곡물 등임.

- 공정경쟁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01년에는 57개 사업체, 2002년에는 48개의 사업체가 독점 활동 금지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법인의 설립 요건 및 절차

- 카자흐스탄이 법인 설립은 <합자회사에 관한 대통령령>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국제 조약의 규칙들이 적용된다.
- 설립 신고서
 - 합자회사의 설립 신고서는 설립계약과 회사정관을 규정하며, 공증을 받아야 한다.
- 설립 계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설립자들에 의한 합자회사의 설립조건 및 절차
 - 합자회사 설립에 따른 설립자들의 활동 절차
 - 설립자본의 규모
 - 합자회사의 설립자본인 자금과 자산의 양도 기간 및 절차
 - 설립자본내 설립자 각각의 몫의 크기
 - 설립자들간의 이윤 및 손실의 분배
 - 설립자의 합자회사로부터 해산 절차
- 합자회사의 설립계약 내용은 사업적 비밀이다. 참여자들은 모두 설립 계약에 서명을 한다. 합자회사의 정관은 설립자들에 의해 승인되며, 이는 설립 계약에 명시된다.
- 회사정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회사의 종류, 명칭, 위치, 사업기간

- 설립절차 그리고 회사운영 및 감독기관의 권한
- 경영자의 설립권한
- 자산형성절차
- 이윤분배 및 손실 배상절차
- 사업중단과 회사재조직에 관한 조건
- 회사와 설립자간의 상관관계

○ 정관에는 법령이나 설립자에 의해 다른 조항들이 포함될 수 있다. 설립자가 아닌 사람들의 자금이나 자산의 유치를 주 사업으로 하는 은행, 보험회사, 투자펀드, 그리고 기타단체들은 특별 법규정에 의거하여 승인되며 효력을 갖는다.

○ 설립자본

- 법인 설립자본으로서의 출자금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화폐, 외환 그리고 건물, 설비, 기구, 원료, 재료, 상품, 생산품, 유가증권, 기타 값어치 있는 물품들, 지적활동의 결과에 대한 권리등 수용가능한 모든 자산권이 가능하다.

- 출자금의 금전적 평가는 설립자들간의 합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의무적이고 독립적인 감사를 받아야 한다. 합자회사는 설립자본의 최소 25% 를 설립자들이 지불해야 하며, 주실회사의 경우에는 설립 신고서에 명시된 액 수의 50%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설립자본의 나머지는 회사등록후 일년 안에 지불한다. 설립자본 자금은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등록된 전권은행에 보관해야 한다.

(외국합작 법인등록 서류)

1. 법무부가 정한 양식에 따른 신고서
2. 카자흐스탄어와 러시아어로 쓰여진 설립 계약서 3부
3. 카자흐스탄어와 러시아어로 쓰여진 기업정관 3부
4. 설립되는 기업의 설립자본중 법으로 정한 액수가 은행
구좌에 예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설립되는 법인의 신고도니 설립자본의 0.5%에 해당하는
법인등록세 납부영수증 또는 지불위탁 사본
6. 지불능력에 대한 그의 시민권이있는 나라의 은행확인서
7. 여권 사본이나 개인신분을 증명하는 다른 서류(자연인
인 경우), 또는 자국의 법에 따라 법인임을 증명하는 무
역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 위의 6,7은 카자흐스탄어와 러시아어로 된 공증번역과
함께 제출한다.**

(외국합작 법인의 사업면허)

○ 외국합작 법인에게 필수적인 ,카자흐스탄공화국 내에서의
사업권 면허는 다음과 같이 세분화 된다.

○ 재산의 형태나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주체에게 있어 면허

취득이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일반 면허들

○ 외국 합작 법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면허취득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 관한 특별면허, 그러한 사업의 종류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에 의해 정해진다.

<면허 발급에 관한 카자흐스탄공화국 대통령령>에 의거하면 면허를 발급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 라디오 주파수대와 지구정지통신위성의 이용
- 상설발전소에서 전기에너지의 생산
- 화학용, 천공용, 원유, 가스산업용, 지질조사용, 광산용 기기 및 설비, 통제시스템, 재난 방지 시스템, 경보장치, 승강기, 압력수송관등의 제조, 조립, 수리
- 지하자원채굴시 광구 측량
- 철도, 해상, 하상, 항공, 그리고 자동차등을 이용한 화물 및 승객수송
- 유용광물 탐사, 채굴, 생산과 가공
- 귀금속, 보석 및 귀금속제품의 탐사, 채굴, 생산, 가공, 보관, 판매
- 수자원 및 산림자원의 이용
- 식량생산 및 도, 소매
- 은행업, 어음교환업
- 외환거래업

○ 허가사업에 종사하기 위한 면허는 그 사업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만족 시키는 자격을 갖춘 주체에게만 발부된다. 면허 발부는 카자흐스탄 정부와 해당 법규정에 의해 정해진 국가기관이 담당한다. 면허 발부시, 생산조건이 사회환경,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지 않는가를 고려한다.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 정해진 양식의 신고서
- 면허신청자와 자격요건의 일치를 증명하는 서류
- 면허세의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

(노동 여건 ,사업여건 및 생활여건)

* 호 텔 비

특급호텔(정상요금,싱글1박,시내중심지)	350\$
특급호텔(할인요금,싱글1박,시내중심지)	280\$
중급호텔(정상요금,싱글1박,시내중심지)	150\$
중급호텔(할인요금,싱글1박,시내중심지)	120\$
조식(특급호텔,Continental Breakfast)	25\$
조식(중급호텔,Continental Breakfast)	13\$

* 임 금

사무실직원(월급여,대졸초임)	250\$
사무실비서(월급여,학력불문)	200\$

가정부급여(월급여,1일8시간,월25시간기준) 150\$

***노동여건**

법정최저임금(월급여)	50\$
상여금(월급여대비%,연간)	50-100%
사회보장부담금(월급여대비%,연간)	5%
법정휴가일수(연간)	24일
출산휴가일수(연간)	150일
연간국경일	9일
노동쟁의시 냉각기간일수	3일
주당 법정근무시간	41시간

*** 사업여건**

법정최저자본금	1,000\$
회사설립 변호사(법무사)비용	200\$
부지구입비용(제조업용,303m ² ,주재국수도 인근)	15,000\$
법인 은행대출금리(1년)	8~12%

2. 주요 지역별 투자 진출 유망 분야

가. 원유, 천연가스

1) 매장 및 생산현황

○ 카자흐스탄의 원유 매장량은 가채매장량 기준시 322억 배럴(세계7위*), 추정매장량 기준시 966억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카스피해에 전체 매장량의 60% 이상을 매장되어 있다.

- 매장량중 대부분은 텡기즈, 카라차가나크, 카샤간, 우첸 유전 등이 차지하고 있으며, 가채매장량의 71%를 점유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은 독립직후부터 원유산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개발을 허용한 바, 외국기업들은 국영석유공사인 '카즈무나이가스'와 합작사를 설립, 유전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 카자흐스탄은 CIS 국가중 러시아에 이은 제2위 생산국으로, 원유 생산량은 90년대초 일산 41.5만배럴에서 2003 현재 일산 103만 배럴에 달하고 있으며, 98년 이후 매년 15% 이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향후 카스피해 해상유전인 카샤간 유전(자채매장량 100억배럴 추정) 등이 본격 개발될 경우 2007년에는 일산

1.2백만배럴, 2010년에는 일산 2.3백만배럴, 2015년에는 일산 3.5백만 배럴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의 2003년도 1-7월간 원유 생산량은 29.3백만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11.2% 증가하였으며, 가스 생산은 77.2억 큐빅미터를 생산, 21.7%가 증가하고 있다.

- 카자흐스탄의 2003년도 원유 생산량은 약 52백만톤(일산 103만배럴)예견

- 2002년도 생산량은 원유 47.2백만톤 (일일 생산량 : 93.9만배럴, 전년대비 18.2% 증)

- 2003년상반기 원유수출량은 21.6백만톤(약 33.8억불)을 기록하였는 바, 수출금액 기준시 전년동기 대비 78% 증가함.

○ 천연가스의 확인매장량은 2.485조m³(자료원 : 미 석유산업 컨설팅기관 Wood Mackenzie)이며, 2002년에는 131억 m³를 생산, 2001년(116억 m³)대비 13% 증산되었다.

○ 천연가스는 러시아와 인접한 카라차가나크 가스전에 전체매장량의 40%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기타 텡기스, 우리타우 등에 분산되어 있고, 최근 발견된 카샤간에도 상당한 양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카라차가나크 가스전 개발 국제콘소시움(KIO)은 2006년까지 40억불을 투자, 개발을 지속하면서 액화천연가스 공장(3억불) 건설도 병행중이며, '필립스'사는 2004년까

지 카스피해 아티라우에 액화 천연가스공장 신설(5억불)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중에 있음.

○ 주재국은 파블로다르, 아티라우, 악타우, 침켄트 등 4 곳의 정유시설에서 일일 42.7만배럴을 정유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정유량은 5.8백만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6% 증가하였다.

- 주재국은 일본가스공사(JGC)와 합작

- 2001-3년간 3.8억불을 투입하여, 아티라우정유공장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완공시 동 정유소의 연간 정유능력은현 50만톤에서 480만톤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2) 주요 유전개발 현황

가) Tengiz 유전

○ Tengiz 유전은 가채매장량이 60억-90억배럴로 추정되며, 합작사인 Tengizchevroil(TCO) 사가 개발

- 93.4월 Chevron사는 카자흐스탄정부와 200억달러의 Tengiz 유전개발 계약 체결

- Tengiz 유전의 생산량은 93년 일산 2.5만 배럴에서 2001년 일산 29만 배럴까지 증가하였으며, 2003.1 TCO측은 3억불을 추가 투자하여 2006년에는45만 배럴, 2010년에는 70만 배럴로 생산량을 증가시킬 계획임.

나) Karachaganak 유전

○ Karachaganak 유전은 British Gas(BG), Agip사가 주도하고 있는 컨소시엄인 KIO (Karachaganak Integrated Organization)가 개발하고 있으며, KIO 컨소시엄은 98년 35-40억불을 6년간 투자한다는 계획에 따라 개발을 개함.

○ 동 프로젝트의 가채매장량은 석유 및 컨테네이트 22.5억배럴, 천연가스 4,571억^m이며, 2001년에는 일산 10만배럴을 생산하였으며, 2002년에는 원유 516만톤, 천연가스 48억^m를 생산하는 등 당분간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다) Kashagan 유전

○ Kashagan 유전은 아직 탐사단계지만 예비추결과 전의 규모가 지난 30년간 발견된 유전중 세계 최대규모인 것으로 평가됨.

- 동 유전의 가채매장량은 100억배럴 이상으로 평가되며 최대 600억배럴 규모로 추정됨.

- 2007년 1단계 개발후 생산량은 일산 10만 배럴로 예상되며 추가개발에 따라 생산량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프로젝트 운영권자는 2001년 Agip사가 컨소시엄의 주도권을 확보한 이후 AgipKCO사로 개명하였으며, Agip(이태리), 엑손모빌(미국), TotalFinaElf(프랑스),

Dutch/Shell(영국, 네덜란드), Inpex(일본), 필립스(미국) 등이 참여하고 있음.

라) 기타

- 중국은 악토베 유전개발(추정매장량 : 10억배럴)에 여하고 있으며, 중국석유공사인 CNPC가 8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 중국은 2002.12 카샤간 유전개발 콘소시움인 AgipKCO에 참여하고 있던 BG의 지분 16.67%를 12.3억불에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여타 참가사들이 우선매입권을 행사하여 중국의 참여시도가 무산된 바 있다.

- 러시아는 카라차카나크 유전, 탱키스 유전에 루크오사가 각각 15%, 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 카나다는 1991년 주재국에 진출한 캐나다계 "Petro - Kazakhstan"사(2003.5.30 개명, 구 " Hurricane - Hydrocarbons"사)가 Kumkol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동 지역의 추정매장량은 약 4.42억 배럴이다.

- 탱키스, 카라차카나크, 카샤간 유전등에서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 <쉐브론(미), 엑손모빌(미), Aigp(프), BG(영), TotalFinaElf

(프), <허리케인>(캐), <루크오일>(러) 등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2003 - 2015년간 원유개발 프로젝트>

구분	내용
원유 생산 목표	2010년 까지 170만b/d, 2015년 까지 300만b/d로 증산
외국투자 유치	+ 총520만불을 유치, 신규 유전개발 및 송유관을 건설 +기간별 유치 규모 - 2003-2005년간 110만불 - 2006-2010년간 200만불 - 2011-2015년간 210만불
기간별 추진계획	+ 2003-2005년: 송유관 건설 추진 - 카자흐 서부-(투르멘 경유)- 중국서부/이란간 송유관 건설 검토 - 아제르바이잔(바쿠)-터키(세이한)간 송유관과 카자흐 악타우 연결노선 건설을 추진 + 2005-2007년 :카샤간 원유개발 주력 + 2010- 2015년 :카스피해 개발사업을 본격추진

- 원유 사업 발전계획 추진기간중 영유권 분쟁 및 송유관 건설문제 미결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카스피해 유전개발을 위해 “카즈무나이트니스”사를 설립(2003.3)하고, 카스피해 3단계 개발 프로젝트를 확정했다.(2003.6)

<카스피해 3단계 개발 계획>

구분	기간	주요내용
1단계	2003-2005년	원유,가스전 탐사, 인프라 건설, 계약십의
2단계	2006-2010년	유전,가스전 개발 가속화
3단계	2011-2015년	안정적인 원유 생산구축

※ 참고자료: 카스피해 해저경계선 획정 분쟁

○ 카스피해 연안 5개국(러시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이란, 투르크메니스탄)은 카스피해를 해안선에 따른 분할 또는 균등분할을 주장,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 러시아(19%), 카자흐스탄(29%), 아제르바이(18-9%)은 해안선 길이에 비례한 분할을, 이란, 투르크메니스탄은 20% 균등 분할을 요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002.5월 주재국은 러시아 및 아제르바이잔과 중간선 해저경계에 합의하는 협정에 서명하는 등 개별국간 합의를 통해 카스피해 개발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한.카자흐스탄 원유개발 협력 사업

○ 카자흐스탄 원유개발 산업에 참여하고자 우리 석유공사, 삼성, LG, SK, 대성 등 5개사는 2002.3 원유개발 콘소시움을구성하여 카스피해 유전개발 참여를 적극 추진중에 있다.

- 한국이 세계석유 6대 소비자이자 4대 수입국임을 감안시, 중동에서 예기치 못한 사태 발생에 대비한 자원외교

강화 차원에서도 우리 석유 수입구조의 다변화는 절실히 필요

- 우리 콘소시움의 성공적인 주재국내 유전개발 참여는 원유,가스 등 풍부한 각종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전역에서의 자원개발 참여뿐 아니라 연관분야에서의 경제협력 확대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2003.11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방한은 우리의 유전개발 참여기회 마련 등 양국간 실질협력관계 확대 발전을 위한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카자흐스탄 광물자원 분야)

○ 카자흐스탄은 우라늄, 철, 금, 구리, 크롬, 망간 등 다양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유, 가스산업에 이은 핵심산업으로 광물 채취산업은GDP의 25%, 산업생산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철광석,비철금속 생산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 우라늄은 확인 매장량이 45만톤(추정 매장량 100만톤 이상)으로 세계 제1위이며, 국영 '카즈아토프롬'사가 연간 3,500톤을 생산, 러시아, 유럽 등에 수출하고 있음.

※ 우리 한전은2002년 KazAtomProm과 우라늄 정광 공급 계약을 체결,2003년중 381톤,2005-2012년간은 연 800톤의 우라늄을 수입키로 합의

- 철은 전세계 매장량의 4%인 91억톤이며, 29개 지역

에서 채굴중

- 금은 매장량이 약 6천톤으로 세계 4위(2001년 27.1톤 생산), 은은 세계 생산량의 5%를 점유(2001년 982톤 생산)

- 크롬은 확인매장량이 전세계 매장량의 21%인 3.2억톤(세계 2위)이며, 망간은 전세계 매장량의 8%인 4.26억톤(추정 5.1억톤)을 보유

- 구리는 전세계 매장량의 6%이며, 삼성이 합작투자한 '카작무스'사는 최대광산인 제스카스칸에서 연 42만톤(연출액 : 8억불) 채굴중

○ 2002년도에는 생산 호조에도 불구하고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수출은 부진한 편이었으며, 광물자원의 2002년도 수출비중은 13.9%였다.

○ 외국 주요 투자기업은 삼성(제스카스칸 구리광산), 네덜란드 Antillies사(카라간다 철광산) 등으로 카자흐스탄 정부는 각종 광물자원 채굴권에 대한 입찰을 계속 추진중

○ 2003.10 한국 광업진흥공사는 카자흐스탄 지질위원회 측과 기술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통신 운송 분야)

1) 통신

○ 유선통신 분야는 전화회선이100명당 15회선으로 선진

국(40회선)에 비해 미흡한 실정(2001년 기준)이며, 2015년까지 3배로 증설 계획이다.

- 아스타나, 알마티, 악토베 등에 국제교환소를 설치하고, 악토베, 세미팔라친스크 등 주요 도시에 장거리 광통신망을 부설 계획임.

○ 무선통신 분야는 휴대전화 보급률이 최근 급증(1997년 1.1만대 2002년 91.2만대)하는 추세이며, K-Cell 등 3개사가 무선통신 시장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다.

- 이와 관련, 삼성전자, LG 전자 등 우리 기업들의 휴대폰 매출도 우수한 성능과 가격경쟁력에 힘입어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인터넷 보급률도 급격히 신장(1998년 885회선?2002년 13.4만회선)하고 있으나, 통신환경은 아직도 모뎀이 대부분이며 ADSL 등 고속통신망의 경우 고액의 통신료로 인해 사용이 저조한 편이다.

○ 카자흐스탄 정부는 국영 '카자흐텔레콤'의 공공통신망에 대한 독점권을 2004년 4월에 자율화할 계획이다.

○ 미국 모토로라, 루슨트 테크놀로지, 스웨덴 에릭슨, 핀란드 노키아 등 외국 통신업체가 카자흐스탄 통신부문 장비 현대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진출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 LG는 통신망 현대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알마티시 광역권에 74,500회선 규모의 전자교환기(TDX) 및

관련기자재 공급, 교육, 훈련을 시행중임.

2) 운송

○ 세계 최대 내륙국인 카자흐스탄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는 바, 육상운송 부문은 투자여지가 많은 부문이며 주변국과의 복잡한 통관 절차등이 완화될 경우 운송관련 사업은 협력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 철도망은14,000km로 CIS 국가중 세 번째로 방대하며, 이중 1/3은 복선화, 전철화가 완료되었다.

○ 카자흐스탄은 2008년까지 수송개발 계획을 수립, 국제 운송로 개발 및 국제운송 인프라와의 통합, 국내운송 인프라 구축, 관련법 정비 등을 우선사업으로 선정하였다.

(건설 분야)

○ 1998년 아스타나로 수도이전, 원유,가스 등 자원개발, 인프라 건설 추진등으로 건설장비, 건자재 및 주택건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 특히, 아스타나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 관련, 2007년까지 동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반입되는 건설자재는 관세를 면제해 주고있으며, 공항, 호텔, 무역센터 건설 및 아스타나-

알마티간 도로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음.

- 알마티에서는 신국제공항건설이 진행중인 가운데,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대형빌딩 개보수, 상가, 아파트 등 신규건축 등이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음.

- 카스피해 원유생산의 중심도시인 아티라우에서는 외국인들을 위한 주거단지, 비즈니스 센터 건설등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석유운송을 위한 카스피해 연안 신허만 건설도 추진중에 있음.

○ 이와 관련, Kuat사(고려인 기업인 소유)등 건축관련 업체들의 한국산제품 수입에 대한 관심과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인 바, 한국산 건축자재류의 신규수출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3. 현지 주요 투자진출 사례

가. 투자 실패사례

- 사례명 : 『트랜스 월드그룹 (TWG)의 비철금속사업』
- 사례소개
 - TWG(영국)은 90년대초 영국의 자본과 러시아인에 의한 현지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CIS 내의 각종 비철금속

사업에 진출하여 세계비철금속 사업에 진출하여 세계비철금속 시장의 주요 공급업체로 급속히 부상하였고, 94년 카작 알루미늄등의 업체를 인수하였으나, 현지 법규 위반으로 98년 퇴출된 사례이다.

○ 시사점

- 경영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 간과 (이전가격의 적정성)
- 합작 파트너 선택의 중요성 간과 (우호적 관계의 파트너가 관계 악화시 추출의 주역으로 탈바꿈)
- 법정 판결의 경우 “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평범한 진리 간과

나. 투자 성공사례

○ 사례명 : 『삼성물산의 구리 제련소 위탁 경영 사업』

○ 사례소개

- '95년 파산에 빠진 카자흐스탄 구리 제련소를 국제입찰을 통해 카작 정부로부터 경영을 위임받아 5년간 경영 정상화 노력을 통해 현재 종업원 6만명의 세계 10대 구리 제련소로 탈바꿈 시킨 사례이다.

○ 시사점

- 현지 인력개발 및 관리
- 현지화 전략 : 지역 전문가 제도를 통한 인력 확보
- 사회적 현지정서의 철저한 준수 (고용문제, 사회적 기여등)
- 고위 경영자의 현장 책임경영 (신속한 의사 결정 채널 구축)

- 원칙과 상식적인 투명경영으로 신뢰간 구축 (win-win 전략 및 정도 경영 실시)
- 참고사항
 - “카작무스”(카자흐스탄 구리제련소)는 1928년 설립된 업체로 CIS에서 가장 큰 구리공장이며, 순도 99.99%의 구리를 생산한다

4. 주요 지역별 투자관련 기관 연락처

○ IGM Consulting Company

Address: 480091, 84-a, Gogol str., Almaty

Tel: 7-3272-503-895, 503-896

Fax: 7-3272-503-897

E-mail, web site: igm@belight.net, www.igm.kz

Comments: marketing, investment research and investment attraction, business planning

○ Asia Business Consulting

Address: 480100, 80, Bogenbay Batyr str., 2nd floor, Almaty

Tel: 7-3272-916-789, 916-778, 918-420, 504-545

Fax: 7-3272-918-454

E-mail: info@albc.kz

Comments: tax, financial, managerial, IT, investment etc.

consulting

◦ **DNT Consulting Company**

Address: 480100, 80, Bogenbay Batyr str., office 409, Almaty

Tel: 7-3272-916-045, 7-333-226-38-11 (mobile)

Fax: 7-3272-917-751

E-mail, web site: dnt@nursat.kz, www.dnt.kz

Contact person: Igor Zuzko (Director)

Comments: marketing research, business restructuring, investment consulting, business-plan etc.

◦ **Expert Consulting**

Address: 480008, 32-a, Manas str., office 509, Almaty

Tel: 7-3272-778-704

Fax: 7-3272-412-700, 778-725

E-mail: acspecial@nursat.kz

Comments: investment consulting, marketing strategy, innovation consulting

◦ **NPV**

Address: 480004, 76, Zhibek Zholy str., Almaty

Tel: 7-3272-739-820, 736-917

Fax: 7-3272-581-293

E-mail: tenir@tenir.kz

Comments: consulting and investment activity

◦ **Alternative finance**

Address: 480091, 55/57, Zhambyl str., Almaty

Tel: 7-3272-501-228

Fax: 7-3272- 501-228

E-mail: n/a

◦ **GML International LTD.**

Address: 480013, 15, Republic Square, office 510, Almaty

Tel: 7-3272-636-912, 630-258

E-mail: n/a

◦ **Investment Group ACME Co. LTD.**

Address: 480013, 14, Abai Ave., Almaty

Tel: 7-3272-627-786, 582-788

Fax: 7-3272-582-788

E-mail: acme@kaznet.kz

◦ **SGS Kazakhstan LTD.**

Address: 480091, 146, Zheltoksan str., 3rd floor, Almaty

Tel: 7-3272-503-607, 503-608

Fax: 7-3272-588-252

◦ **Investconsulting**

Address: 480013, 184, Shagabutdinov str., Almaty

Tel: 7-3272-478-403, 478-424, 935-405

Fax: 7-3272-478-286

◦ **Kazinvest, Kazakhstan Investment Promotion Center**

Address: 480091, 67, Aiteke Bi str., Almaty

Tel: 7-3272-720-660

Fax: 7-3272-501-277

E-mail, web site: kazinvest@kazinvest.kz, www.kazinvest.kz

Contact person: Askar Batalov (President)

Comments: state investment promotion agency

◦ **Capital, Agency**

Address: 480046, 88, Satpaev str., office 5, Almaty

Tel: 7-3272-464 -708

Fax: 7-3272-464-708

E-mail: capital_ag@mail.kz

◦ **CJSC Consultinvest**

Address: 47, Makataev str., office 504, 505, Almaty

Tel: 7-3272-306-316, 304-090

Fax: 7-3272-306-316

◦ **KazRosInvest Corporation**

Address: 480091, 96, Zheltoksan str., Almaty

Tel/Fax: 7-3272-735-036

○ **Tenir Group**

Address: 480004, 76, Zhibek Zholy Ave., Almaty

Tel: 7-3272-739-820, 736-917

Fax: 7-3272-581-293

VIII. 통계

1. 주요 경제 지표

구분 (단위)		연 도					
		98	99	2000	2001	2002	2003(10월)
GDP	명목 (10억달러) (억 불)	1,773,264 (221)	1,893,478 (169)	2,595,965 (182)	3,302.6 (220)	3,747.2 (245)	3270.2 (216)
	실질성장율(%)	-1.9%	2.7%	9.5%	13%	9.5%	9.1%
	GDP per capita	\$1,481	\$1,000	\$1,223	\$1,467	\$1,631	\$1.946
							(년말 예상치)
월평균임금(불)		123.7	94.2	94.8	118.5	135.4	146.6
인플레이션(%)		7.1	8.3	13.2	6.4	5.9	4.2 6.1 (년말 예상치)
평균환율(1불당 달러)		78.3	119.5	142.1	150.9	153.4	146.5 (11월 현재)
총외채 (백만불) (GDP대비 %)		9,921.1 45.0%	12,062.8 71.2%	12,327.9 70.8%	15,101.4 68.3%	18,042.4 73.9%	19,877.1 (7월 현재) 74.4%
외국인직접투자(백만불)		1,233.2	1,849.9	2,098.2	3,997.7	4,074	
재정수지(GDP 대비 %)		-4.2	-3.5	+0.1	-0.9	+0.03	-0.4 (8.30현재)
실업율		3.7	3.9	3.7	2.9	2.6	2.4 (6.30현재)

(자료원: 카자흐스탄 통계청, 국립은행)

2. 카자흐스탄 대외 교역 현황

가. 카자흐스탄 대외교역 추이

구분	2000	2001	2002	2003
계(백만불)	14,245.6	15,032.6	16,199.6	15,155.2 (9월 현재)
수출	9,193.5	8,668.8	9,709.1	9,379.3 (9월 현재)
수입	5,052.1	6,363.2	6,490.5	5775.9 (9월 현재)
무역수지	4,087.4	2,305.6	3,218.6	3603.4

(자료원 : 카자흐스탄 통계청 , 국립은행)

나. 2002년 주요 국가별 수출입 비중

국가	수입(%)	국가	수출(%)
러시아	38.8%	버뮤다 및 버지니아 아일랜드	22.2%
독일	8.6%	러시아	15.9%
미국	7.3%	중국	10.6%
중국	4.8%	이태리	9.5%
		스위스	7.6%

(자료원:카자흐스탄 통계 위원회)

다. 2002년 수출입 주요 품목별 비중

수출	품목	수입	품목
	원유(52%)		기계 및 장비류(44%)
	잡화류(25.5%)		잡제품(16%)
	정련 구리(8%)		화학 및 제품(15%)
	평판강(7%)		철강 제품(11%)
	식품류(4%)		식품류(8%)
	곡물류(3.5%)		석유 및 그제품(6%)

(자료원: 카자흐스탄 통계 위원회)

3. 대한민국 교역 현황

한-카자흐스탄 수출입 추이

(단위 : 천불, %)

구분	2000	2001	2002	03.1 -10월
총교역	131,766	164,139	197,780	287,908
수출	82,385 (45.5)	108,003 (31.1)	126,110 (16.8)	174,726 (75.7)
수입	49,381 (-3.8)	56,136 (13.7)	71,670 (27.7)	113,182 (107.2)
수지	+ 33,004	+ 51,867	+ 54,440	+ 61,544

(자료원 : 관세청)

4. 투자 유치 현황

Foreign Investment in the economy of Kazakhstan as of December 31, 2002 (US\$ million).

	Cumulative		Including		
	Total	% of total	Direct	Portfolio	Other
Total investment	23,008.7	100	15,353.8	338.2	7,316.7
Including by basic countries					
USA	6,660.4	28.9	6,286.9	65.3	307.8
GB	2,404.6	10.5	1,930.8	84	389.7
Netherlands	2,296.3	10	1,446.1	7.7	822.6
Italy	1,298.5	5.6	1,268.4	0	30.1
Russia	977.4	4.2	606.5	1.3	369.6
Japan	786	3.4	343.7	0	442.2
Germany	670.8	2.9	207.1	5	458.7
Turkey	597.3	2.6	355.7	3.7	237.9
Switzerland	531.3	2.3	199.3	8.1	323.9
China	573.4	2.5	485.8	0.3	87.3

Canada	402.9	1.8	388	0	14.9
France	397.6	1.7	284.7	0.1	112.8
Indonesia	362	1.6	358.1	0	3.9
Other	5,061.9	22	1,172.7	162.7	3,715.3

(자료원: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The Dynamics of Investment in MRM (US\$ million)

(MRM : Mineral & Raw Materials sector)

Minerals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Oil, gas, Condensate	1,477	2,033	2,129	2,990.7	3,492.7	4,810.
Complex ore	275.8	260.3	185.5	224.6	287.7	306.9
Coal	437.3	501.7	216.3	175	241	275.4
Copper	286.6	271.2	206.7	213.9	206.3	176.7
Iron, manganese	357.6	260.85	110.5	155.8	187.1	189.7
Gold	104.7	70.3	43.7	60.6	65	78.8
Chromites	18.7	62.9	38.9	52.3	57	46.9
Uranium	19.6	29.4	25.44	31.6	38	46
Aluminium (bauxites)	32.9	33.7	22.7	30.6	44.8	32.5
Nickel, Cobalt	01.5	0.5	0.1	0.4	0.01	0.5
Other minerals	52.3	56.6	41.8	44.8	41.9	30.1
Widely spread - - mineral	38.7	52.2	26.2	31.3	43.1	56.5
Underground waters	17.3	41.3	35.3	31.5	42.1	42.7
Total	3,12	3,674	3,082	4,043.1	4,746.7	6,092.8

(자료원 : 에너지 및 광물 자원부)

Gross FDI Inflows into kazakhstan by type of economic activity
(US\$ illion)

	1993-2000	2001	2002
Agriculture, hunting, forestry a. fish-breeding, incl.	7.4	5	2.5
Agriculture, hunting a. services	7.4	4.3	1.4
Fish-breeding, activity of the fish-farms, hatcheries	0	0.7	1.1
Quarrying Industry	7,841.2	3,078.1	2,107.7
incl.			7.7
coal, peat, lignite	22.8	-1.8	2,064.9
crude, oil a. gas	6,303	3,057.8	18.6
uranium ore	5.8	10.2	11.4
metallic ore	1,500.3	2.4	5
other	9.3	9.5	
Processing Industry	1,766.4	641.4	829.5
including			
processing of agriculture products	409.3	88.2	64.2
production of coke, refinery of crude oil, production			
a. processing of nuclear materials	73.6	62.1	106.3
chemical industry	78.2	8.7	21.3
ferrous industry	372.4	21.9	7.3
nonferrous metallurgy	661	367.2	564.7
production of metallic goods	0.3	0	2.2
production of electrical a. electronic equipments	136	67.4	43.1
other	35.6	25.9	20.4
Production a. Distribution of Electrical Energy, Gas			
a. Water	433	33.8	17.5

Construction	33.2	31	40.8
Trade, Repair of Cars a. and Other	150.5	62.8	102
Hotels, Restaurants	52.4	24.6	11.8
Transport a. Communication Network	160	161.1	95.2
Financial Activities	206.4	44.4	11.8
Real Estate, Business, Leasing a. Other	1,432.8	456.5	841.4
State Management, Education, Care of Public Health, Social Services	118.1	6	13.4
Other	360.8	0	0
Total:	12,562.2	4,544.6	4073.5

(자료원: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5. 기타 참고자료

카자흐스탄의 정부 주요기관 및 유관기관

(정부기관)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10, Beibitshilik Str., Astana city

(3172) 153-003

www.mfa.kz

○ *Committee on the CIS Affairs*

10, Beibitshilik str., Astana city

(3172) 153-282

○ Ministry of Defense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51-A, Beibitshilik str., Astana city

(3172) 317-892

www.mod.kz

○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4, Manas str., Astana city

(3172) 372-088

www.mvd.kz

○ *Internal Troops Committee*

63-5, Pobeda str., Astana city

(3172) 239-467

○ Ministry of Health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66, Moskovskaya str., Astana city
(3172) 317-409

○ *Committee on Sanitary and Epidemiological Supervision*
66, Moskovskaya str., Astana city
(3172) 317-807

○ *Committee on Pharmacy, Pharmaceutical and Medical Industry*
66, Moskovskaya str., Astana city
(3172) 317-594

○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33, Pobeda str., Astana city
(3172) 717-511

○ *Investment Committee*
10, Beibitshik str., Astana city
(3172) 322-010

○ *Committee on Standardization, Metrology and Certification*
76, Druzhba st., Astana city
(3172) 395-084
www.memst.kz

○ *Trade Committee*

36, Auezov str., Astana city
(3172) 102-414

○ *Small Business Support Committee*
92, Abai str., Astana city
(3172) 215-482
www.romb.kz

○ *Construction Committee*
15/1, Raionnyi str., Astana city
(3172) 346-273

○ *Defense Industry Committee*
166/5, Pushkin str., Astana city

○ Ministry of Finance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33, Pobeda str., Astana city
(3172) 717-299
www.minfin.kz

○ *State Property and Privatization Committee*
33, Pobeda str., Astana city
(3172) 717-708

○ *Treasury Committee*
33, Pobeda str., Astana city
(3172) 717-706

○ *Tax Committee*
33, Pobeda str., Astana city

(3172) 717–108

www.taxkz.kz

○ *Committee on Work with Insolvent Debtors*

166/1, Pushkin str., Astana city

(3172) 396–309

○ *Financial Control Committee*

33, Pobeda str., Astana city

(3172) 717–116

○ Ministry of Economy and Budget Planning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33, Pobeda str., Astana city

(3172) 717–770

○ Ministry of Culture, Information and Public Concord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22, Beibitshilik str., Astana city

(3172) 322–495

○ Archives and Documentation Management Committee

39, Abai str., Almaty city

(3272) 629–131

○ *Culture Committee*

2, Manas str., Astana city

(3172) 374–135

○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60, Republi str., Astana city
(3172) 333–325

◦ *Higher Examination Committee*
28, Shevchenko str., Almaty city
(3272) 628–039

◦ 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1, Satpayev str., Kokshetau city
(31622) 54265

◦ Ministry of Agriculture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49, Abai str., Astana city
(3172) 323–763
www.minagri.kz

◦ *Committee of Water Resources*
28, Mozhaiskii str., Astana city
(3172) 356–727

◦ *Committee of Forestry, Fish and Hunting Industry*
49, Abai str., Astana city
(3172) 326–713

◦ 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49, Abai str., Astana city
(3172) 326–277

○ *Committee on Motor Roads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Aerospace Committee*
71, Auezov str., Astana city
(3172) 320–208

○ *Aerospace Committee*
37, Mira str., Astana city
(3172) 318–285

○ *Civil Aviation Committee*
49, Abai str., Astana city
(3172) 327–381

○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Committee*
71, Auezov str., Astana city
(3172) 157–799

○ *Transport Control Committee*
71, Auezov str., Astana city
(3172) 333–607

○ Ministry of Employment and Social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2, Manas str., Astana city
(3172) 153–602
www.enbek.kz

○ Ministry of Justice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45, Pobeda str., Astana city

(3172) 391–213

◦ *Committee on Drug Abuse and Drug Business Control*
45, Pobeda str., Astana city
(3172) 324–922

◦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1, Kartalinskaya str., Astana city
(3172) 388–809

◦ *Registration Service Committee*
21, Respublika str., Astana city
(3172) 322–395

◦ *Penal and Penitentiary Systems Committee*
Micro District 3/32, Astana city
(3172) 373–605

◦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37, Beibitshilik str., Astana city
(3172) 317–133

◦ *Committee of Geology and Subsoil Protection*
1, Satpaev str., Kokshetau city
(31622) 54264

◦ *Committee on State Energy Supervision*
37, Beibitshilik str., Astana city
(3172) 102–266

○ *Nuclear Power Committee*
4, Liza Chaikina str., Astana city
(3172) 633-356

(기타)

○ National Security Committee
8, Zheltoksan str., Astana city
(3172) 155-112

www.knb.kz

○ Accounts Committee on Control over Republican Budget
Executing
2, Beibitshilik str., Astana city
(3172) 152-147

(유관기관)

○ Agenc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for Regulation of
Natural
Monopolies and Protection of Competition
36, Auezov str., Astana city
(3172) 334-250

○ Agenc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for State Material
reserves
2, Tsiolkovskii str., Astana city
(3172) 356-773

○ Public Procurement Agenc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126, Auezov str., Astana city
(3172) 396–637
www.kgz.minfin.kz

○ Customs Control Agenc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116, Auezov str., Astana city
(3172) 227–303
www.customs.kz

○ Statistics Agenc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125, Abai str.,
Astana city
(3172) 621–323
www.stat.kz

○ Emergency Management Agenc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91, Abylai Khan str., Almaty city
(3272) 919–390

○ Financial Police Agenc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37–A, Abai str., Astana city
(3172) 325–610
www.finpol.kz

○ Land Management Agenc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41, Zheltoksan str., Astana city
(3172) 320–211

○ Migration and Demography Agenc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103-A, Auezov str., Astana city
(3172) 317-925

○ Tourism and Sport Agenc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126, Auezov str., Astana city
(3172) 396-638
www.kazsport.kz

○ Civil Service Agenc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2, Beibitshilik str., Astana city
(3172) 151-100
www.gosslugba.kz

○ National Academy of Science
28, Shevchenko str., Almaty city
(3272) 930-025